

「공감 그리고」는 무가지로 발간되며, 별도의 구독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부산문화회관, 구·군 문화회관(해운대, 을숙도, 금정, 동래, 영도), 부산시민회관, 감만창의문화촌, 조선통신사역사관, 사상인디스테이션, 흥티아트센터, 도시철도 북 하우스, 또따또가 운영센터, 영화의전당, 부산 시립미술관, 영광도서, 부산지역 관광안내소 등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배포처 문의 : 051-745-7224 이메일 : bscf@bscf.or.kr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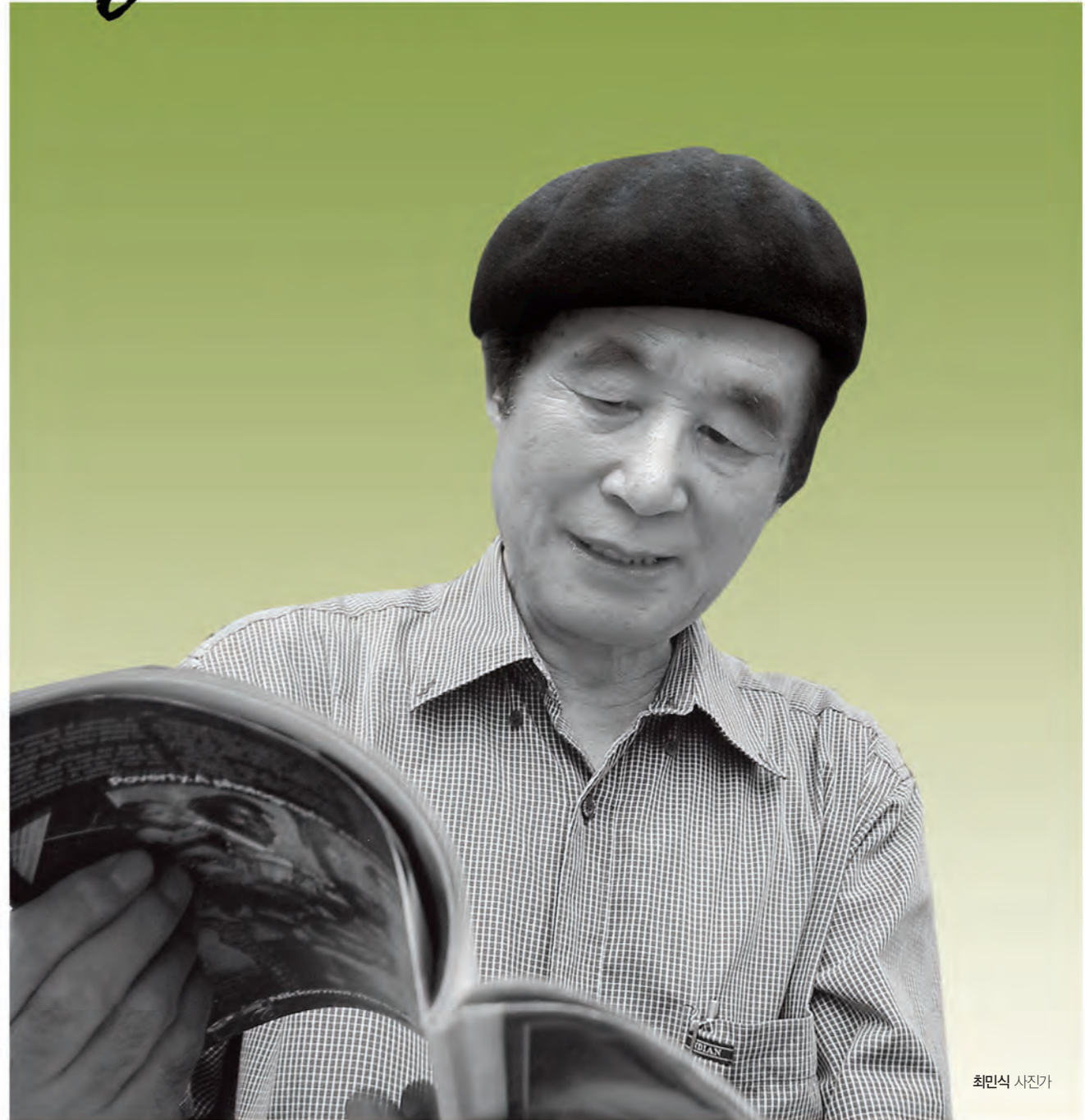
[4854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 051 744 7707 F. 051 744 7708 ~ 9
www.bscf.or.kr



문화예술정보지
공감 그리고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 30 Autumn 2018

공감 그리고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 30 Autumn 2018



최민식 사진가



08

어는글

04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닌 달'에 다시 독서를 생각한다

공감의 뗏고동

- 08 Space | 부산의 대안공간 속에 꽃 피는 지역 예술 - 영주맨션 말하기
- 14 Harmony | 미투 이전과 이후, 우리는 계속 연결되어 있다
- 20 Issue | 조선통신사로 연 국제명화교류의 문
- 28 People | 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 크리스티나 리쿠페로와의 인터뷰

공감 Review

- 36 '2018 부산거리춤축전 - 유체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보고
- 40 주민, 예술인, 지자체가 힘 모아야 도시재생 성공한다



46

B-side

46 B-side |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덕후 문화



56

돌아와요 부산鄉愛

- 56 니, 그거 아냐? | 초량왜관, 역사의 수장고에서 걸어 나오다
- 60 누꼬? | 우리 시대의 워트니스 사진가 최민식
- 66 거 가봤나? | 삶의 흔적을 품은 자리 안창마을 골목



36

그리고 재단

- 74 듣기 | 부산 문화예술인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으로
- 76 말하기 | 3/4분기 부산문화재단의 이슈
- 78 보기 | 10월, 11월, 12월 주요행사



커버스토리 _ 누꼬?

상처받고 힘들었던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한
이 시대의 진정한 휴머니스트 최민식 작가를 돌아보다.

표지 사진 _ 문진우 사진가



74

문화예술정보지 「공감 그리고」

통권 30호 정기간행물(부산남 바00007) ISSN 2586-1077

등록일 2011. 6. 23 발행일 2018. 11. 10

발행인 유중목

담당부서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84-1(감만동)

TEL. 051-744-7707 www.bsct.or.kr

편집위원 이재희 문진우 양화니 정민정 정상도 이연승 홍동식

편집기획 박승환 안혜민

디자인 및 제작 효민디앤피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닌 달’에 다시 독서를 생각한다

글 정상도 국제신문 문화사업국장, 본지 편집위원

꼭 10년 전 이맘때 일이다. ‘소설가 김주영과 함께하는 문학기행’이 2008년 11월 15~16일 김 작가의 대표작 ‘객주’ 무대인 경북 문경새재와 그의 고향 경북 청송 일대에서 열렸다. 김 작가는 특유의 입담으로 오늘의 문학적 성취를 이룬 세 가지 동력으로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가난을 꼽았다. 온갖 희생을 마다치 않은 어머니의 사랑이 김주영 문학을 만든 원형의 힘이라면, 결혼해서 일흔이 된 당시까지 계속 생활비 달라고 보채는 아내는 ‘깊고 깊은 글쓰기의 고독’을 일깨우는 에너지랄까. 그리고 ‘혼절하고 싶을 만큼 극심했던 가난의 기억은 인간의 삶에 천착하는 글을 쓰는 계기였으리라. 어릴 때 하루 세 끼 먹는 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적빈했고, 그런 궁핍이 오히려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가장 큰 힘이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으니 하는 말이다.

선배가 쓴 이런 기사를 떠올린 이유는 이번 호 ‘공감 그리고’에 실린 사진가 최민식의 글 덕분이다. 1928년 황해도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난 최 선생은 쓰라린 가난을 겪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 곧 나다. 나의 자화상이다”**라고 말했다. 2012년 5월 최 선생 인터뷰를 부산 남구 대연성당 인근 자택에서 진행했다. 기사는 국제신문에 실렸고, 인터뷰 모습은 국제신문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올렸다. 아마 최 선생이 2013년 2월 세상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 육성이 담긴 인터뷰가 아니었나 싶다.

그 동영상을 다시 살펴봤다. 최 선생은 이렇게 회고했다.

“여섯 식구가 1년 농사를 지으면 7개월을 먹어요. 5개월은 쌀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요즘도 죽을 보면 옆에도 가기 싫어요.”

그리고 최 선생은 그 가난을 ‘인간’에 초점을 맞춘 리얼리즘 사진으로 승화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다. 책 읽기와 글쓰기다. 최 선생은 ‘HUMAN’ 시리즈 등 사진집 14권을 포함해 34권의 책을 남겼다. 그 저력을 이렇게 설명했다.

“후배들이 물어요. ‘선생님 사진은 와 닿는 것이 있는데 우리 사진에는 왜 그런 것이 없습니까’ 하고요. 나는 ‘체험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요. 그럼 ‘체험이 없으면 못 찍겠네요’ 하고 되물지요. 그때마다 간접체험을 하라고 해요. 테레사 수녀나 슈바이처의 인생을 되짚어보라고요. 그게 모두 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톨스토이가 말했어요. ‘한 권의 책을 만들기 위해 1만 권의 책을 보라’라고요. 공부해야겠다, 독서를 해야겠다 다 다집했고, 그리고 열심히 읽었지요.”

인디언들이 11월을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닌 달’이라 했다더니, 최민식 선생을 추억하기에 참으로 들어맞는 표현으로 여겨진다.

내친김에 중국 청나라 문인 장조(張潮)가 지은 잠언집 ‘유몽영(幽夢影)’ 가운데 독서와 관련한 구절 하나를 소개한다.

‘藏書不難이로되 能看爲難이요 看書不難이로되 能讀爲難요 讀書不難이로되 能用爲難이요 能用不難이로되 能記爲難이로되.’

장서가(藏書家) 되기는 어렵지 않으나 필요할 때 능히 찾아보는 간서가(看書家) 되기가 어렵고, 간서가(看書家) 되기는 어렵지 않으나 능히 책을 읽고 이해하는 독서가(讀書家) 되기가 어렵고, 독서가 되기는 어렵지 않으나 책을 통해 배운 지식을 능히 실제로 활용하는 능용가(能用家)가 되기가 어렵고, 능용가 되기는 어렵지 않으나 능히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기억하는 능기(能記家)가 되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신동준은 ‘유몽영, 삶을 풍요롭게 가꿔라(인간사랑)에서 멋진 해설을 덧붙였다. 송나라 건국공신 조보(趙普)의 일화를 들려 제시한 ‘반부논어(半部論語)와 ‘개권유익(開卷有益)이다. 논어의 절반으로 송나라 태조를 도와 나라를 세우고, 나머지 절반으로 태종을 도와 태평성대를 이뤘다는 취지의 ‘반부논어’와 책을 펼치기만 해도 그 안에 이로움이 있다는 뜻의 ‘개권유익’에서 책 읽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깨우쳐주고 있다. 사진가 최민식을 다룬 글은 많은 이의 책을 읽고 이를 자신의 글로 소화한 독서가이자 저술가인 최민식을 새삼 더 그렇게 만든다. 다산 정약용은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지혜(慧)와 부지런함(勤)과 고요함(寂)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른바 다산의 ‘위학삼요(爲學三要)다. 최 선생은 능기가, 즉 문장가이며 위학삼요를 실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디언들은 12월을 ‘침묵하는 달’ ‘무소유의 달’이라 불렀다. 2018년을 제대로 정리하고 희망찬 2019년을 맞으려면 침묵 속에 스스로를 다스리고, 더하기보다는 덜어내야 하지 않을까. ‘사람의 인격을 알려면 그 사람의 서재를, 친구를, 부모를 바라던 최민식 선생의 이야기가 꺾전을 맴돈다.

공감의 벚고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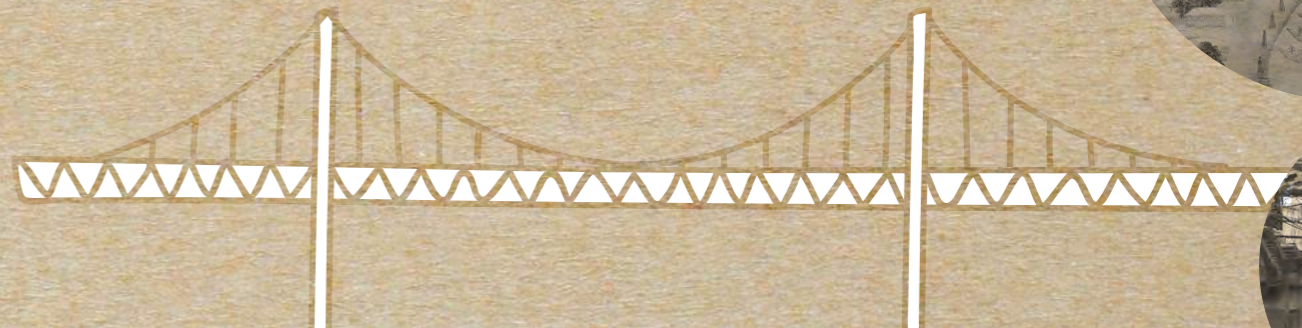
008 부산의 대안공간 속에 꽃 피는 지역 예술 - 영주맨션 말하기
- 이봉미 영주맨션 관리자, 팀 하우와유 프로젝트 진행자

014 미투 이전과 이후, 우리는 계속 연결되어 있다
- 변정희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설 상담소 소장, 부산문화재단 문화다양성사업 실행위원

조선통신사로 연 국제평화교류의 문
- 김영은 「공감 그리고」 에디터

020

028 흠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 양은진 부산시립미술관 학예사





부산의 대안공간 속에 꽃 피는 지역 예술

미술관이나 화랑의 권위주의와 상업주의에서 벗어나 예술가의 제작 활동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비영리 전시공간을 우리는 '대안공간'이라 부른다. 과거 부산을 대표했던 대안문화공간이 줄줄이 문을 닫거나 폐쇄되기도 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생기 없던 공간에 작가들의 손길이 닿으며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갤러리 수정, 공간 힘, 보수동 공간, 스페이스 만덕, 영주맨션, 예술공간 이일구 등 인터넷 검색만 몇 번 해보더라도 부산에는 끊임없이 지역과 소통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그들만의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대안공간들이 존재한다. 모든 공간을 자세히 소개하고 싶지만 간략한 정보만 안내하고, 영주맨션 이봉미 관리자에게 <영주맨션>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갤러리 수정 www.gallerysujeong.com

멀리 부산항의 은빛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수정동 수정아파트 내부에 자리한 전시공간. 비상업적 갤러리로 사진을 위주로 하는 대안공간이며 현대화와 도심의 팽창으로 인해 주민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빈집들이 늘어가는 이곳에 자리 잡고 있다.

공간 힘 www.facebook.com/artspaceheem

부산 팔도시장 인근에 위치한 비영리 예술공간. 사회문제에 대해 예술로 사유하고 발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획자, 작가로 구성된 운영진이 전시, 세미나,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보수동 공간 www.facebook.com/pfree0

다양성 모임 공간이자 비영리 자립형 문화 모임 공간. 문화가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이루어가는 곳이다.

스페이스 만덕 www.facebook.com/spacemandeck

북구 만덕동의 만덕시장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다. 잠든 공간을 깨우고 창의적 열정으로 만덕동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자 하며, 정형화된 전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간에 예술적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고 고립에서 탈피해 소통의 통로 역할을 하고자 한다.

예술공간 이일구 blog.naver.com/artspace219

감천문화마을에 자리 잡은, 버려져 있던 집을 빌려 예술에 대해 논의하고 색다른 전시를 모색하는 공간. 일반적으로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에서 전통적인 매체를 이용하는 작업이 아닌, 감천의 민낯과 같은 시멘트 집에서 다양한 매체와 장르로 각자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예술작업을 모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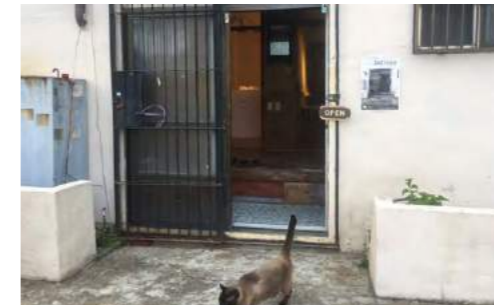


영주맨션 말하기

글 이봉미 영주맨션 관리자, 팀 하우와유 프로젝트 진행자

거주공간에서 전시공간으로 재구성

예술공간 영주맨션은 2018년 4월 오래된 영주아파트에 문을 열었습니다. 영주동은 한국전쟁 때 피란민들의 정착으로 인구가 증가했고, 이 때문에 현재도 집들이 빼곡히 들어선 동네입니다. 이 산복동네에 자리한 영주아파트는 1960년대 지어졌으며 지금도 벽돌을 쌓아 만든 창문을 계단마다 볼 수 있는 오랜 시간을 간직한 곳입니다. 이곳 9-다동 5호에 영주맨션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문을 열기 전 영주아파트 위치는 웹 지도상에서 찾기 어려웠습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지금은 잊힌 장소를 불러오기 위해 '영주'라는 이름과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아파트를 지칭하는 '맨션'을 붙여 영주맨션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현재는 재개발 이야기 때문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영주아파트 위치가 웹 지도에 표시됩니다.)



영주맨션 입구 모습. 고양이와 자주 찾아온다.



영주맨션과 영주아파트

영주맨션은 저를 포함한 노수인, 김수정 작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15평 남짓한 이 공간에서 직책을 두지 않고 서로를 '관리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공간에 대해 논의할 당시 역할에 대한 뚜렷한 경계선이 있지 않았고 직책이 주는 상하 수직적 긴장이 존재한다고 판단했기에 '관리자'란 명칭을 선택했습니다. 공간을 보듬고 다듬는 '관리자'는 영주아파트 분위기와도 어울리고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는 영주맨션의 의향을 나타냅니다.

공간은 가벽과 전기공사를 제외한 벽지 제거와 페인트칠을 수작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겹겹이 쌓인 벽지를 뜯어내고 굵는 지루한 시간을 보냈고, 치우고 청소하고 그라인더로 평평하게 벽을 갈았습니다. 이 벽은 영주아파트 외벽 색에 맞춰 칠해졌습니다. 거주공간이었던 이곳을 전시공간으로 바꾸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오픈전시 <Reframe: 다시 구성하다>로 이어졌습니다.

공사 중에 나왔던 벽지와 부산물은 전시되었고 안/밖을 구분하지 않고 펼쳐는 <영주맨션 접기/펼치기>, 우리 이전에 존재했던 사물에게 이야기 짓기, 전/후의 과정을 관객과 나누기 위해 남겨둔 벽지를 직접 뜯어가는 참여형 전시가 진행되었습니다. 개인사/미시사를 중점에 두고 영주맨션 이전의 시간과 현재를 재구성(reframe)한 이 전시는 앞으로 나아갈 영주맨션의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겹쳐진 벽지



영주맨션 공사 사진



Reframe 전시

예술로 삶을 말하는 순간이 있는 곳

오픈전시 후에는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영주맨션은 실제 사람이 거주하던 곳에 전시기능을 들여왔고, 사적인 공간(안)인 '집은 공개된(밖)' 전시 공간이 되었습니다. 안/밖의 교차, 개인/미시사에 초점을 두고 기획된 전시가 선정되었고, 두 번의 전시가 영주맨션과 함께하였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사라져 가는 공간'에 대해 작업하는 박준호 작가의 <보통의 상상>입니다. 그는 풍경과 조응한 색을 한지에 물들이고 도시와 하늘의 경계선을 따라 향으로 태운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전시 동안 공간에 피워둔 향내는 부재한 것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주었습니다.



전시 포스터들



<만디의 J> 전시 전경



<산산전> 전시 전경

두 번째인 정진경, 신지연 작가의 <만디의 J>는 실제 영주맨션을 배경으로 둔 페이크(fake) 스토리와 영주동 골목을 포착한 드로잉을 전시했습니다. 가파른 영주동의 계단, 사물을 무명실로 캐스팅한 작품, 수놓은 목장갑을 전시하여 가상의 인물 J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경산 예술중심공간 보물섬과 교류전 <산산전>을 진행하였고 11월에 올해 마지막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주공간과 전시공간의 교차점을 지나 다양한 지점을 고민하고 기획할 예정입니다.

공간을 오픈하고 가진 몇 차례의 인터뷰는 영주동과 공간을 묶어 지역 활성화에 관한 질문을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답하자면, 영주맨션은 특별히 무언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의식을 지니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반짝하며 사라지는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보다 그 곳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이 더 소중하며 영주맨션 또한 영주아파트 주민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삶을 예술로 말하는 순간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주맨션은 말하는 장소입니다. 거대사에 휩쓸려 가려지는 미시사를 건져내어 예술로 말하고 기록하기를 바랍니다.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닌, 그렇지만 사소하지 않은 지점을 예술을 통해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부의 말로 끝을 마무리하지만 전시 기간 정기적으로 문을 열지만 변동사항이 있기에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오시기 전 페이스북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전시 소식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놀러오세요.

미투 이전과 이후, 우리는 계속 연결되어 있다

연대의 힘이 만들어낸 수잔나 딜버 초청 미투 국제 포럼

글 변정희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설 상담소 소장,
부산문화재단 문화다양성사업 실행위원
사진제공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미투 국제 포럼, 부산과 서울에서 열리다

10월 5일, 태풍 콩레이가 느린 걸음으로 제주를 벗어나 부산을 향하는 중이었다. 이날 예정되어 있었던 부산 쿼어 퍼레이드 축제는 한 주 연기되었고, 부산국제영화제의 야외 행사도 취소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비바람이 한 차례 쏟아지고 난 저녁, 태풍 소식에도 불구하고 해운대 부산영상벤처센터에는 6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스웨덴에서 미투 운동을 이끈 수잔나 딜버를 초청한 미투 국제 포럼이 열리는 자리였다. 국제 포럼은 <예술계 미투 이후, 연대의 힘>이라는 주제로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부산문화예술계반성폭력연대,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한국어성인권진흥원의 공동 주최로 여성가족부의 후원을 받아 부산과 서울에서 두 차례 진행되었다. 스웨덴 공연예술연맹 배우 부문 이사회 의장 수잔나 딜버는 유럽 미투 운동의 진원지였던 스웨덴에서 어떻게 576명의 여배우들이 한목소리를 내게 되었는지 들려주었다.

이번 포럼에는 특별한 계기와 이유가 숨어 있었다. 한국에서 연극계 미투 운동에 동참했던 배우 박영희 씨가 스웨덴의 미투 운동을 이끈 수잔나 딜버와 바하르 파스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언제든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면 함께하겠다는 응답으로 한국에서의 국제 포럼이 성사된 것이다. 한국과 스웨덴의 여성 예술가들이 보여준 동지애와 자발적인 연대의식은 우리에게 감동과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이번 포럼은 서울과 부산에서 함께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은 전국적으로 일어났지만, 그 해결과정을 논의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은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지역적인 연대가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 아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공론화하는 장을 지역에도 함께 마련한 것이다. 부산 포럼에서 이화정 <씨네 21> 기자는 한국 영화계 미투 운동의 생생한 과정을 이야기했고, 부산문화예술계반성폭력연대에서 활동 중인 송진희 작가는 부산 문화예술계에서의 반성폭력 운동의 지난한 과정을 풀어내었다. 배우이자 연출가인 박영희 씨는 이번 국제 포럼이 성사된 극적인 계기를 들려주었고, 필자 역시 토론자로 참석하여 예술인들의 친구이자 지지자로서 활동가의 시선에서 미투 운동 이후의 예술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틀 뒤 열린 서울의 국제 포럼에서는 전강희 비평가가 미국 <시카고 시어터 스탠다드>를 소개했으며, 조한진희 씨와 배우 김신록 씨가 토론을 통해 스웨덴의 미투 운동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심도 있게 풀어내었다.

<시카고 시어터 스탠다드 Chicago Theatre Standard(CST)>는 의사소통(Communication), 안전(Safety), 존중(Respect), 의무(Accountability)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통해 예술가의 창작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장 백서이다. 2015년 시카고의 한 배우가 성폭력 가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하여 "NOT IN OUR HOUSE"라는 SNS 문구를 만들었다. 같은 해 시카고 극단의 공동 대표인 로라 피셔(Laura T. Fisher)의 주도로 극단 대표들, 예술가들, 행정가들이 초안을 만들고 20여 개 극장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여 완성되었다.

스웨덴의 미투 운동,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랐을까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한 나라로 알려진 스웨덴에서 일어난 미투 운동은 많은 이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랐을까. “남자는 인간이었고 여자는 여자였습니다.” 수잔나 딜버의 이 한 마디가 모든 상황을 이해시킨다.

성평등을 지향하는 제도를 일구었지만 근원적인 차별적 구조와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배우와 스타프 등 영화제작진의 남녀비율이 5:5에 이른다는 스웨덴의 영화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여자 배우들은 예술가로서의 경력이나 활동에 있어 암묵적인 차별을 견뎌야 했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끊임없는 성적 대상화는 성희롱과 성폭력을 야기했다. 이화정 <씨네21> 기자의 말처럼 여자를 위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나 스웨덴에서의 미투 진행 과정과 그 해결 과정은 한국과 달랐다. 배우들은 SNS에 비공개 페이지를 만들어 그들의 경험을 공유했고, 500여 명이 모였다. 서로에 대한 강한 자매애와 연대의식으로 이들은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몇몇의 가해자를 지목하기보다는 구조를 드러내기 위한 전략으로 언론을 통해 집단으로 미투 운동을 벌였다.

파급효과는 엄청났다. 곧이어 700명의 오페라 가수들, 6,000명의 변호사들, 65개 분야의 여성단체들에서 같은 방식의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스웨덴 전역을 뒤흔들었다. 한국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 생을 걸고 공중파와 언론에 존재를 드러내어 가해자의 행위를 폭로하는 그 용기에 의해 미투 운동이 불붙었던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스웨덴에서의 미투 운동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도 성공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물론 스웨덴에서도 쏟아지는 2차 가해들로 인해 SNS의 비공개 그룹을 삭제하고 거의 매주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 안전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노조가 미투 운동을 뒷받침해주었으며, 차별금지법과 여러 성평등한 제도와 문화들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새로운 법안의 제정을 끌어내는 데 힘을 실어주었다.

스웨덴의 각종 언론에 보도된 집단적인 미투 운동에 대하여 스웨덴의 수상은 ‘페미니스트 정책’을 발표했고, 스웨덴 왕족까지 나서서 이것은 “거대한 힘”이며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음으로써 사회에 더 나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격려했다. 미투 운동 이후 여러 공연장에서 배우들은 익명의 증언들을 낭독했으며, 공연기관들은 모든 형태의 괴롭힘, 성폭력에 대한 정책과 대처 방안을 재검토하고 이러한 정책과 규범을 다 함께 큰 소리로 낭독했다.

반면 불과 몇 년 전의 한국을 돌이켜보자. 성폭력에 대한 여성들의 수많은 진술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기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적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다. 한 여배우가 목숨을 걸고 성접대의 실상을 고발한 자필 편지조차도 믿을 수 없는 진술로 변모해버린 적이 있다. 피해 당사자들이 신변에 대한 위협이나 2차 가해의 위험을 감수하고서 자신의 존재를 내걸고 가해를 폭로했던 이유도 여성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어떤 구조적인 압력이 하나의 원인이기도 했다.

때문에 많은 여성들은 자신을 삶을 걸고 용기를 내어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침묵을 찢고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백래시

초청자 소개

수잔나 딜버

Suzanna Dilber

스웨덴 공연 예술연맹 배우부문

이사회 의장

수잔나 딜버는 스톡홀름 예술 대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한 뒤 1998년부터 스웨덴 왕립 드라마 극장과 스톡홀름 시립극장 그리고 Riksteatern (스웨덴 정부가 전국 투어 공연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극장)등 스웨덴 내 모든 메인 무대를 오르며 왕성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 프리랜서 배우이다. 2003년에는 영화와 TV 드라마에 출연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작품에서 주연을 맡아 활약 하였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스웨덴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우로 명성을 떨치며 스웨덴디즈니사의 보이스 연출을 맡아 일했다. 최근에는 스웨덴 국영방송국에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영화 및 TV 프로그램의 오디오 해설을 맡아 하고 있으며 2012년과 2015년 두 편의 소설을 출간하여 소설가로 등단하였다. 수잔나는 2014-2018년 스웨덴 공연 예술 조합 (Union for Performing Arts and Film)에서 노조 위원으로 선출되었고, 2016-2018년 스웨덴 공연 예술연맹 배우 부문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backlash, 반격)는 엄청났다. 미투 운동 이전부터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났던 #OO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에서도 피해자들은 온몸으로 맞서야 했다. 폭로된 진실이 공론화되고 해결되기도 전에 가해자로부터의 법적 소송, 미디어에 의한 2차 가해 등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미투 운동은 한국 안에서 지역과 서울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다. 성폭력과 성차별은 어디에나 존재했지만 지역은 그 협소한 관계망으로 미투 운동을 한다는 것이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어렵게 만들어진 부산의 #문화예술계내_성폭력_고발 페이지에도 지지와 응원이 따르기는커녕 "사실 여부가 판단이 안 된 글을 SNS에 올려서야 되겠나. 이런 분위기가 문화 판을 더 위축시킨다. 성폭력 얘기 그만하고 이제 작업을 해라. 작가는 작품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는 비판으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위축시키거나 축소시키는 일도 허다했다. 사회문화적 분위기나 여론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장 최근에는 부산에서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대응센터가 이후 예산이나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존폐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부산시에서 예산은 마련되었지만 이후 대책은 앞으로도 과제로 남아 있다.

1) 송진희, <부산문화예술계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한다는 것>, 미투 국제 포럼 발제문 중



미투 이후, 우리가 원하는 변화

#문화예술계내_성폭력_고발 운동에서 #미투_운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미투 운동은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냈다. 전 세계에서 한국 미투 운동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전망은 아직까지 어렵다. 문화예술계 내 미투 운동의 과정에서 현장의 당사자들은 이를 해결할 법과 정책, 제도를 살펴보았지만 어디에도 문화예술계 내에서 성폭력 가해 행위자에 대한 배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술가의 권리 보호와 이러한 처리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현재의 문화예술계 반성폭력 운동은 피해 당사자들과 예술가들이 직접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뒷받침해줄 든든한 노조도, 제도와 정책도 없는 상황에서 스웨덴 미투 운동의 사례가 오늘날 한국에 공유되었다는 것은 여러 시사점을 던져준다. 특히 스웨덴에서의 미투 운동이 익명성과 집단성을 기반으로 하나의 거대한 세력화를 일구어냈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 당사자를 위해서도 무척 중요하게 채택되어야 할 전략이 될 것이다.

그런 집단적인 조직화의 흐름은 현재 한국에서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부산에서는 문화예술계반성폭력연대가 만들어져 "그것은 예술이 아니라 폭력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공간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되어 왔던 성폭력과 성차별의 행태를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또 최근에는 여성 창작자이자 예술가로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의 자리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처럼 여성의 집단적인 목소리를 만들어 나갈 징을 만들어나가는 것, 여성운동에서 사적인 영역을 정치화한 것처럼 예술의 영역을 정치화해나가는 것, 미투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할 변화 중 하나다.

이번 국제 포럼은 한국과 스웨덴이 연결되는 계기뿐 아니라 지역 간의 연결과 연대를 모색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박영희 배우는 시카고 스탠다드를 만든 로라 피셔에게도 연대를 요청해, 내년 2월에 국제 포럼을 한국에서 열기로 합의하였다는 소식 또한 전해주었다. "나는 미투 운동이 해낸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변화를 원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었다는 점입니다." 수잔나 델버의 말이기도 하지만, 자발적인 연대의 힘으로 성사된 국제 포럼이야말로 그 확신의 증거이기도 했다.

수잔나 델버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즐길 여유도 없이 바로 서울에서 열리는 미투 포럼을 향한다고 했다. 그는 부산에서의 포럼을 마치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말했다. "나는 사실 당신들이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와 상황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내어주었으니까요. 앞으로도 변화를 기대하며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직 이 목소리에 힘을 보태기 위하여 먼 길을 와 준 연대와 자매의 힘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조선통신사로 연 국제평화교류의 문

부산문화재단 제37회 세종문화상 수상

글 김영은 「공감 그리고」 에디터



부산문화재단 제37회 세종문화상 '국제문화교류' 부문 수상

세종문화상은 세종대왕의 위업을 기리고 창조정신을 계승하고자 1982년 제정된 상이다. 한국문화 창달 및 진흥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되는 대통령 표창으로,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손꼽힌다. 올해로 제37회를 맞이한 세종문화상은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23일까지 '한국문화, 예술, 학술, 국제문화교류, 문화다양성' 5개 부문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최종 후보자 선정 후에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대상자를 공개하고,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대중의 평가를 공식심사 자료로 활용하여 한층 더 엄정하게 후보자를 확정짓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이 철저한 검증을 거친 가운데, 부산문화재단은 올해의 세종문화상 '국제문화교류 부문'에서 수상을 하는 영예를 얻었다.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조선통신사 한일 문

화교류사업을 추진하여 한일 간의 문화교류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과 더불어, 국내 9개 기관(국립중앙박물관 등) 소장 조선통신사 기록물(63건 124점)과 일본 측 25기관 소장 기록물(48건 209점)이 일본 조선통신사연구학회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공동 등재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낸 공로 덕분이다. 제37회 세종문화상 표창식은 10월 8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시상식 현장에서 부산문화재단 유종목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에 대해 "조선통신사라는 한일 양국이 가진 긍정의 기억이 현재 한일 양국 간에 여러 갈래로 얽혀있는 실타래를 푸는, 좋은 윤활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한일 양국이 함께 노력해 이룬 성과에 대한 평가라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등재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10월 25일 부산에서 개최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강남주**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 등재 한국추진위원회 학술위원장

촬영 **김재경** 포토그래퍼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발족한 조선통신사 문화사업회 추진위원회

부산문화재단의 세종문화상 수상이 조선통신사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와 연관이 큰 만큼 부산문화재단과 조선통신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 바로 부산문화재단 강남주 초대 대표이사이다. 강남주 전 대표이사는 1937년 경상남도 하동 태생으로 부산 MBC 기자, 중앙일보 보도국 차장으로 언론계에 몸담았으며,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및 총장을 역임하면서 오랜 시간 교육계에 머무르기도 했다. 부산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전, 강남주 전 대표이사는 2002년 부경대학교 총장 재임 시절에 '조선통신사 문화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지만 개인의 힘만으로는 실현이 어려웠다. 이에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산시가 집행하는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받아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02년은 한일 월드컵이 개최된 해였던 만큼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성공적인 첫 시도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다음 회로 이어졌다.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받으면서 행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를 늘려 지금은 조선통신사 축제가 부산을 대표하는 행사가 되었다.

“일본과 협의를 통해 교류 일자를 정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선통신사 파견을 위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정사, 부사, 종사관을 비롯한 사절단 인원이 확정되면 부산으로 내려가 항해에 필요한 선원 등을 추가로 선발했죠. 모든 출항 준비가 끝나면 바닷길이 잠잠하기를 기원하는 해신제를 지냈습니다. 조선통신사 축제가 부산에서 열리는 것은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향해 떠난 뱃길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강남주 전 대표이사는 올해 축제에서 이루어진 행렬 재현에서 정사 역할을 맡기도 했다. 그의 나이는 올해로 만 81세. 우리의 역사 속에 여전히 조선통신사가 활발히 살아 숨 쉬고 있는 현재, 그는 그 중심에서 현역 시절 못지않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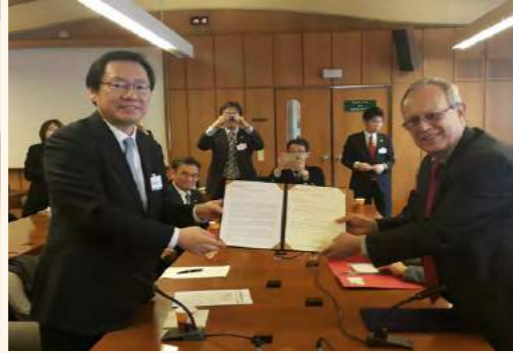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 부산문화재단의 역점 사업으로

조선통신사 사업을 이끈 주역이자, 부산문화재단의 초대 대표이사로서 세종문화상 수상에 대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았다. 그래서 강남주 전 대표이사에게 직접 수상 소감을 물었더니 우문에 대한 헌답이 돌아왔다. 부산문화재단이 세종문화상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었다.

“무려 200년이란 세월 동안 두 나라가 다름 없이 문화적 교류를 유지했다는 사실은 전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지나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관계가 된 한국과 일본 아닙니까. 그럼에도 조선통신사라는 평화 교류의 역사를 통해 과거의 원한을 달래고 미래 평화를 이룩하고자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뜻 깊은 일입니다.”

2009년 부산문화재단이 설립되고 그가 초대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조선통신사 문화사업 추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던 조선통신사 관련 업무는 부산문화재단의 주요사업이 되었다. 이후 해마다 축제와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양국의 민간교류를 확대한 결과 유네스코 등재라는 값진 성과가 가능했다. 조선통신사에 내재된 가치 그리고 부산문화재단의 계승·보존을 위한 노력, 그 두 가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강남주 전 대표이사는 부산문화재단이 세종문화상을 받아 마땅하다고 힘주어 말할 수 있었다.





**세계적 유산으로의 격상
조선통신사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사학 전공이 아닌 강남주 전 대표이사가 어떻게 평생을 조선통신사에 바치게 된 것일까. 그가 조선통신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78년 부산수산대학(지금의 부경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시절 결성한 '어촌민속연구회'라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였다. '우리 문화의 기층을 이루고 있는 원형(archetype)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으로 출발한 연구는 제주도보다 더 가까운 대마도에도 우리 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겠냐는 가설에 이르게 했다. 그간의 연구 실적을 인정받아 문교부의 지원을 통해 대마도로 간 그는 그곳에서 '아리랑 축제와 운명적으로 만났다. 현지민들이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하며 축제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 부러움과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때부터 조선통신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사행록과 같은 관련 자료들을 닦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가치를 실감했고, 그런 깨달음이 조선통신사 문화사업 추진위원회 조직에까지 이르게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조선통신사의 학문적 기반을 더 튼튼히 다지기 위해 2006년 조선통신사 학회도 만들었다. 학회장으로서 전국 곳곳에 흩어진 조선통신사 전공자들을 하나로 모으고 연구논문 발표와 심포지엄 개최 등으로 학문

연구 활동을 이어갔다. "단순한 퍼포먼스에 머무르지 않고 심도 있게 과거의 역사를 현재에 되살린다는 점에서 학회 결성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조선통신사를 온전히 역사적 재산으로 만들고 전 세계적으로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만의 문화유산이 아닌 세계문화유산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자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다. 그러나 이후 2007년 일본 시모노세키 축제 당시 저녁 만찬 자리에서의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등재 추진 발언이 일본 주요 인사들의 큰 공감을 샀고,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선통신사 기록물 유네스코 한일 공동 등재가 추진되기 시작했다. 2015년 발족한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원회의 학술위원장 자리 또한 강남주 전 대표이사 외에 적임은 없었다. 학술위원장이로서 한일 학자 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과정을 이끌면서 결국, 그는 조선통신사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 되었다.

**전쟁 없는 200년간의 한일 역사
국제평화교류의 교과서 조선통신사**

부산문화재단이 생겨나기 전까지 부산시의 문화 행정은 철저히 관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문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부산문화재단이다. 부산문화재단이 출범함으로써 조선통신사 문화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고생하며 조선통신사에 관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 조선통신사는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등재 이후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강남주 전 대표이사는 말한다. 조선통신사를 통한 한일 교류 과정에서 드러나는 화해와 양보 정신이 더욱 빛나기 위해서는 보존 및 계승에 한층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상호간 충돌이 심화되면 다툼이 일어나죠. 한일 관계가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과거의 역사를 귀감

으로 삼아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며 미래를 건설해나가야 해요. 그 노력의 본보기가 바로 조선통신사 기록물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평화를 위해 함께 힘썼던 지난 시간을 교과서로 삼아야 합니다. 부산문화재단은 기록물을 잘 보관하고 국제화 시대 속에서 젊은이들이 조선통신사에 갖는 화합의 정신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니 힘이 닿는 한 글을 쓰고 읽는 일을 계속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그는 올해 초 <초량왜관도>의 화가 변박의 사행 기록을 생생하게 그려낸 <유마도>라는 소설을 출간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25일에는 <흔적 남기기>라는 생애 열 번째 시집을 냈고, 지금은 정유재란 당시 포로로 끌려간 사기장들을 중심으로 한 장편소설을 집필 중이다. 조선통신사를 이야기할 때 그가 빠짐없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의지와 열정이 있었기 때문임을 짐작케 한다.



조선통신사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1주년 기념행사 개최

부산문화재단은 부산시립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공동으로 조선통신사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1주년을 기념하여 일본과 함께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기도 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선통신사 기록물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기획전시. 부산시립박물관에서 11월 25일까지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통신사 기록물' 전시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뿐만 아니라 일본의 소장품까지 볼 수 있다. 이번 특별전에는 한국과 일본의 14개 기관에서 총 81건 115점을 출품했다.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조선국왕국서>, 다카쓰키관음마을역사민속자료관 소장 <아메노모리 호슈 초상>,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통신사행렬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태억 초상> 등 한일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소장품들이 전시되었다. 전시회 개막식 전에는 오오사와 겐이치 오사카역사박물관 전시과장이 <일본 소재 통신사 기록물과 그 역사적 의미>, 사사키 에쓰야 다카쓰키관음마을역사민속자료관 부참사가 <아메노모리 호슈 초상화에 대하여>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치기도 했다.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통신사 기록물의 가치 제고와 제언>이라는 주제로 한·일 관계자 및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강남주 전 대표이사의 <유네스코 등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기조강연을 비롯해 한일 학자 12명의 발표와 토론 등으로 구성되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2015년부터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복원한 조선통신사선의 진수식 또한 기념행사 기간 이루어졌다. 당시 사행 기록 등 문헌과 회화 자료, 전문가 고증을 토대로 발굴·조사된 조선시대 조운선 등을 참고해 제작된 이 배는 앞으로 조선통신사 축제 등 다양한 해양문화 행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조선통신사를 본보기로 삼아 한국과 일본은 상호 협력하며 평화 교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부산문화재단은 이번 세종문화상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더 앞장서 조선통신사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부산시민들을 위한 부산문화재단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한일 문화 교류의 선진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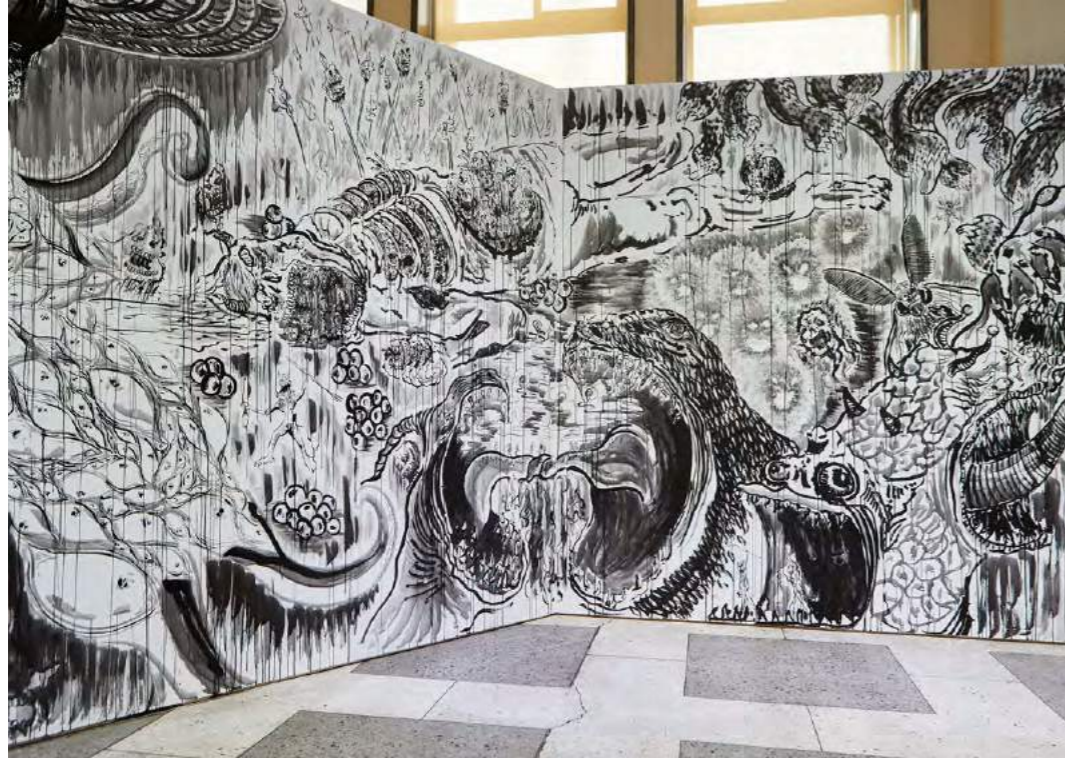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Divided we stand,
united we fall

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 크리스티나 리쿠페로와의 인터뷰

진행·번역 양은진 부산시립미술관 학예사

유이치로 타무라 <거미줄>
2018, 유카 쉼루노 갤러리, 작가 제공



오스카 찬의 뿔 (요한 계시록의)
2018, 작가 제공, 2018 부산비엔날레 커미션



주황 (민요, 저곳에서 이곳에서)
2018, 작가 제공, 2018 부산비엔날레 커미션



필 콜린스 <틸리트 버저>
2016, 세이디 레인 프로젝트(잭(베를린) 제공

펠릭 오페라 (프로그래밍: 돈물 방울 345)
2006-2012, 상탈 크루젤 갤러리(파리), 작가 제공

이번 부산비엔날레 전시 감독으로 일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시 준비 기간도 부족했고 타 비엔날레와 비교하면 예산도 충분하지 못했는데 전시 개막까지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일반적으로 비엔날레의 예술감독과 큐레이터는 거대하고 복잡한 전시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데 적어도 1년 반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부산비엔날레에서는 기대했던 것만큼의 연구 활동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예산과 시간의 한계에 따라 프로젝트를 조정하고 실행해야 했습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있는 분열된 영토에 대한 전시로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산비엔날레에 지원하기 전부터 이미 이 주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작된 작품들을 포함하면서도 더 새로운 주제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2018년 2월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과 제한된 예산을 고려해 66명의 예술가와 작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다양한 작품과 큰 규모의 작품을 포함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참여작가 38명)나 이스탄불 비엔날레(참여작가 56명)와 같은 최근의 사례를 생각해 볼 때 대규모 국제전시는 예술가의 수를 줄여 더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전문적인 관람객조차도 지치게 만드는 거대 규모의 전시나 공연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외그 하이저와 공동으로 일을 진행했는데 두 분은 어떤 계기로 이번 부산비엔날레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오랫동안 서로를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2016년에 처음 공동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Nuit Blanche Monaco(Nuit Blanc 모나코)'라는 축제였으며, 공연, 음악 콘서트, 영화, 비디오 상영 등 다양한 종류의 행사가 밤새도록 개최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외그 하이저와는 2017년 가을 베를린에서 만나 독일, 한국 또는 인도, 파키스탄과 같이 현재 분열된

또는 이전에 분열되었던 국가에 대한 전시를 만들어겠다는 아이디어를 논의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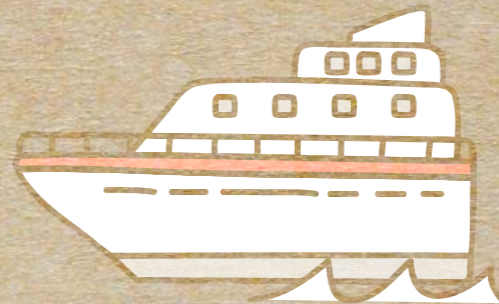
중요한 점은 아티스트들이 이러한 갈등과 역사를 조사했는지 여부와 세계의 다른 지역의 작품을 함께 모으는 것이 유익한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전시에서, 특히 비엔날레에서 국경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많은 토론 끝에 전시의 본질적인 문제는 공간이라는 지정학적 질문뿐 아니라, 그 질문들이 내포하는 정신적 피드백과 트라우마의 복잡한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영혼의 단편화, 편집증, 기괴한 형태들의 불안감 등 영토 분열의 심리적 차원을 탐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부산비엔날레 주제가 '비록 떨어져 있어도입니다. 매우 독특한 주제인데요. 주제를 선정하게 된 모티브와 이러한 주제를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제목 "Divided We Stand"와 관련해서는 언어적 유희인데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이라는 일반적인 문구를 뒤집은 것입니다. 이 문구는 고대부터 유래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이야기꾼 이솝은 네 마리의 소와 사자에 대한 우화에서 이를 사용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18세기에 미합중국을 설립하는 좌우명으로 사용되었고, 20세기에는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하기 위해 투쟁하는 동안 이 문구가 사용되었습니다. 북아일랜드의 영국 귀속을 지지했던 울스터 로열리스트와 아일랜드 공화국과의 재결합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Divided We Stand(흩어지면 산다)"는 애국심을 강조하는 것을 농담조로 조롱하는 문구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것처럼 돈과 계급, 인종, 성별, 종교 등을 비롯해 더 많은 이유가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하는 원인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술가 모두는 이러한 조건들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뿐만

공감 Review



036 '2018 부산거리춤축전 - 유체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보고
- 정연승 청년예술가

040 주민, 예술인, 지자체가 힘 모아야 도시재생 성공한다
- 강동수 소설가·경성대 교수



일상의 거리에서 받은 선물, 거리예술

‘2018 부산거리춤축전 -
유체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보고

글 정연승 청년예술가



부산 거리예술에 새싹이 돌아난 2018년

거리예술은 거리라는 공공의 공간, 일상의 공간에서 불특정다수를 관객으로 만나는 예술이다. 공연장으로 관객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소극적인 예술에서 관객을 직접 찾아나서는 것뿐 아니라, 관객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예술로의 변화를 말한다. 관객들은 우연히 선물처럼 거리예술을 만날 수 있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며, 스스로 작품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이런 갖가지 매력적인 요소들에 힘입어 거리예술 축제는 하나 둘 전국적으로 점점 확산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리예술축제는 보통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장르적 거리예술」 그리고 「장소적 거리예술」. 첫 번째인 「장르적 거리예술」은 다양한 장르(서커스, 퍼포먼스, 마임 등)를 총괄하여 볼거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번째인 「장소적 거리예술」은 거리예술이 펼쳐지는 장소, 공간, 사회적 맥락 등을 고민하고 제기하는 모습으로 거리예술축제를 만들어나간다.

부산문화재단은 4년 전부터 거리예술 활성화 포럼, 거리예술 지원사업 시범운영 등으로 부산에 거리예술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고 2018년 올해 푸릇푸릇한 새싹이 돌아났다고 생각한다. 앞선 6월에는 광안리 해변에서 진행된 '2018 부산국제거리공연예술제가 있었고 10월에는 부산시민공원에서 진행되었던 '2018 부산거리춤축전'이 있었다. '부산국제거리공연예술제'는 다양한 장르가 혼합되어 대중성이 우선시되는 자유로운 거리예술축제였던 반면에 '부산거리춤축전'은 부산시민공원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를 활용하여 예술성, 실험성을 우선시한 장소적 거리예술축제였다.

고체화된 도시를 흐르게 만드는 춤 축제

지난 10월 5~7일, 주말 동안 옛 하야리아 부대 부지인 부산시민공원 남문 일원에서는 거리예술창작단 사하리의 '2018 부산거리춤축전 - 유체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거리예술축제가 펼쳐졌다. 딱딱하게 고체화된 도시를 감응이 흐르는 공간으로 만들어내고자 이름 붙여진 이 프로젝트는 2014년부터 시작되었다.

작년, 2017년 부산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거리예술분야에 선정되어 선보인 '2017 부산거리춤축전'은 중앙동 40계단의 장소·역사성에 초점을 맞추어 펼쳐진 대표적인 장소적 거리예술축제라고 볼 수 있다. 올해는 일제 강점기부터 한국 전쟁 그 이후까지 60년이 넘는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부산시민공원이 그 장소이기에 기대가 더 컸다.



'부산거리춤축전' 첫째 날,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듯한 하늘 아래에서 5개의 작품이 선보여졌다. 특히 공원에서 처음으로 개방한 거울연못 속에서 물과 함께 어우러지는 무용수들의 몸짓은 그 공간과 더해져 신선한 장관을 만들어내었다. 극단 미지의 <Raining day>는 영화 속 'Singing in the rain'처럼 밝았고, 공원이 부산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공생하는 것처럼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쉽고 설레는 동화 같은 작품이었다.

허경미무용단 무무의 <경(鏡)>은 '거울'이라는 매개를 공통점으로 삼아 동명인 이상의 시 '거울'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한다. 거울처럼 반사되는 수면 위 내 모습에서 진정한 내면의 모습을 찾기 위해 물 속을 파헤치고 던져내고 뒹굴면서 움직임을 찾아가는 무용수의 몸짓들이, 역설적으로 투영되는 거울연못의 공간과 더해져 데칼코마니 같은 잔상으로 남은 작품이었다. 더구나 허경미무용단의 작품은 워크숍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서 적극적 관객 참여형 거리예술에 다가가 있었다.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둘째 날의 '부산거리춤축전'은 전면 취소되었지만, 마지막 날 14개의 작품을 몰아 진행하면서 더 다채롭고 풍성한 축제가 되었다. 첫째 날보다 본격적인 춤 축제로 접어들었고 그만큼 다양한 장소에서 색다른 몸짓들이 터져 나왔다.

시어터-아(我)의 <송구하오리다> 작품에서 사쿠마 신의 <dance to deep - center field> 작품으로 가면을 사용해 자연스럽게 오버랩되는 연출이 기가 막혔고, 가장 일상의 몸짓인 걸음을 주제로 한 실험극단 밖의 <견다>라는 작품은 횡단보도를 걸으면서 행인이 퍼포머가 되고, 퍼포머가 행인이 될 수 있는 거리예술의 묘미를 보여주었다. NOMADIC THEATER의 <한아름의 꽃다발을 당신에게> 작품과 알싸 깨 토마의 <너와 나의 숲> 작품이 펼쳐진 기억의 숲은 하야리아 부대가 있던 당시 함께 있던 플라타너스 90여 그루를 모아 조성한 곳으로, 그 공간 자체가 기억이 되고 주제가 되어 무용수들을 그리고 관객들을 보듬어주었다.

일상 속 침포가 되어주는 거리예술의 매력

2018년의 '부산거리춤축전'은 부산시민공원 안에서 여러 공간들을 만나면서 무용수들의 몸짓이 한결 더 생동감 넘쳤고, 공간의 장소성과 역사성이 더해져 작품의 의미와 색깔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었던 거리예술축제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거리예술축제의 마지막까지 함께 관람한 관객들 중 대다수가 관계자들이었음을 고려해본다면, 가족 단위로 많이 찾는 주말 공원에서 춤이라는 단일 장르로만 축제를 꾸리기에 더 많은 행인들을 관객으로 붙잡는 데 다소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의문이 든다.

예술성과 대중성, 교집합이라고는 없을 것 같지만 둘 사이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시도하기에는 거리예술 분야만큼 적합한 것도 없는 것 같다. 그것이 거리예술이 가진 매력이자 힘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거리예술은 산책 중인 일상의 거리에서 예기치 못하게 예술을 만나게끔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행인이 관객이 되고, 관객이 퍼포머가 되며, 다시 관객은 행인이 된다. 이렇듯 거리예술 안에서는 역할에 제한이 없고 부담이 없으며 자유롭다.

예술은 공기와 같다고 생각한다. 평소에는 있는 듯 없는 듯 의식하지 않고 살지만, 실상은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처럼 예술 또한 그렇다. 특히 거리예술은 예술의 그 어떤 장르보다 일상에 가까이 마주하고 있으며, 이미 우리네의 삶에 공기처럼 스며들어 있는지도 모르겠다. "삶의 침포, 부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라는 재단의 슬로건처럼 거리예술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정착, 지원을 통해 부산의 거리예술이 지역주민 모두의 삶 안에서 선물 같은 침포가 되기를 바래본다.

주민, 예술인, 지자체가 힘 모아야 도시재생 성공한다

글 강동수 소설가·경성대 교수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이란 화두는 어제 오늘 나온 것은 아니다. 문화예술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구미에서는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과 '사라져가는 도시문화의 재생'이라는 '재생'에 대한 두 겹의 관점에서 사업이 이루어져 왔다.

도시 재정비를 위한 수단, 문화예술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가 진행 되는 과정에서 교통 혼잡·생활 인프라 부족·도시빈민 발생 등 다양한 도시 문제가 발생하면서 1980년대 들어 도시 재개발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됐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등을 계기로 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재개발사업이 펼쳐진 것이 그 한 예다. 그러나 당시의 도시 재개발은 물리적인 재개발과 재건축에 중점을 둔 도시 정비여서 도시빈민층에 대한 폭력적 이주 강요 등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2000년대 초부터는 물리적 재개발 방식보다는 사회문화적·생활환경적 정비에 초점을 맞춘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문화예술이 도시 재정비의 주요 수단으로서 본격적인 주목을 끌게 된 것도 이 무렵이다. 특히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각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도시재생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를테면, 2014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부산 동구, 청주, 창원, 군산, 목포 등 13개 도시가 선정된 것이 그 예라 하겠다.

정책당국이 문화와 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에 시선을 돌리고 예술가들이 이에 호응하면서 일정한 성과를 낳은 것은 사실이다. 부산의 감천문화마을이나 마산 창동예술촌,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 등이 성공 사례로 자주 꼽힌다. 이 가운데 부산 감천마을,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이 낙후된 마을을 재생시킨 사업이라면 창동예술촌은 죽어가는 상권을 되살린 프로젝트다.

감천문화마을, 동피랑마을은 자주 소개됐으므로 자세한 언급을 피하겠다. 마산 창동은 창원시가 원도심 재생사업을 시작하면서 새 모습을 찾은 사례다. 2012년 창동예술촌, 2013년 부림창작공예촌 등이 개촌하면서 퇴락한 골목이 예술의 옷을 입고 조금씩 되살아났다. 이곳은 도심형 예술단지로 태어나, 기존 건물을 활용한 재정비에 집중했기 때문에 세련된 멋은 없지만 좁고 오래된 건축물에서 느껴지는, 도시 뒷골목의 독특한 정취가 서려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15년에는 2만 3,000명의 세계인들의 이름이 바닥에 새

겨진 ‘상상길’, 2016년엔 오동동 문화광장도 들어섰다. 불중 거리를 중심으로 한쪽엔 상상길과 창동예술촌, 그리고 반대쪽엔 오동동 통솔골목과 문화광장이 자리 잡아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마산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추산동 언덕배기에는 문신미술관도 들어서 있다. 이곳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조각공원 구실을 하고 있다. 문신미술관은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이 1994년 설립한 곳으로, 그가 타계한 후 2003년 시립미술관으로 지정됐다.

지역 정체성이 없는 도시재생 정책

그러나 몇몇 성공 사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도시재생 정책은 기본적으로 문화를 기반으로 도시의 틀과 도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됐다고보다는 문화를 단순한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더 컸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점을 낳은 것도 사실이다.

우선 주민의 삶과 연관성을 가지기보다는 지나치게 관광 산업에 초점을 둔 개발이 많다는 대목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겠다. 다르게 말하자면, 유행을 좇아 너도 나도 베끼기 식으로 비슷한 문화적 시설물을 집어넣어 장소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어떤 지역의 벽화마을이 입소문을 타면 너도나도 우르르 마을 담벼락을 정제 불명의 그림으로 도배질하는 식이다.

도시재생사업 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거나, 최소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제도적 소통장치 없이 일방적 관 주도형으로 진행되는 것도 또 다른 문제점이다. 추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로부터 소외된 도시재생사업이 소득 증대나 고용 창출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뿐더러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생활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테면,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북촌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에도 지난해 태평2·4동과 수진2동 등의 재생 사업을 놓고 주민들이 ‘소방차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좁은 길을 넓히거나 노후 건물의 재건축 등을 추진하지 않은 채 그저 ‘마을 가꾸기’ 방식의 수박겉핥기식 개발을 하려는 것은 우



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에 행정당국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해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창작활동을 해온 문화예술인들이 건물주들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때문에 되쫓겨 나오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도 또 다른 문제점이다. 이 같은 사례는 대학로, 인사동, 신촌·홍대·북촌 등 서울 지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부산의 또따또가 등 지방 도시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게다가 시작 당시의 요란한 구호와는 달리 시설물 등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심의 새로운 흉물로 방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10월 2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 염리동의 소금길이 그런 사례에 해당된다. 밤에 다니기가 두려운 골목길에 밝은 색채의 벽화를 그려서 범죄를 막자는 서울시의 프로젝트에 따라 1.7km 마을길을 화사하게 꾸며 한때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었지만 서울시와 구청의 관리 소홀로 6년 만에 다시 원점 회귀하고 말았다는 것. 이 지역에 재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3년 전부터는 구청의 예산 배정이 중단돼 화사했던 벽화는 색이 바랬고 산책길 안내도는 여기저기 뜯겨나갔다. 마을에 활기를 더했던 물물교환 시장도 구색만 남았다고 한다.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의 필요성

한때 열풍처럼 몰아쳤던 ‘도시재생사업’도 이제는 그 방향

성에 대한 재검토를 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낡은 벽에 울긋불긋 벽화나 그려 넣는 방식의 전시형 사업은 이미 한계에 부딪힌 만큼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주민의 삶 자체의 개선을 이끌 수 있는 ‘주민밀착형’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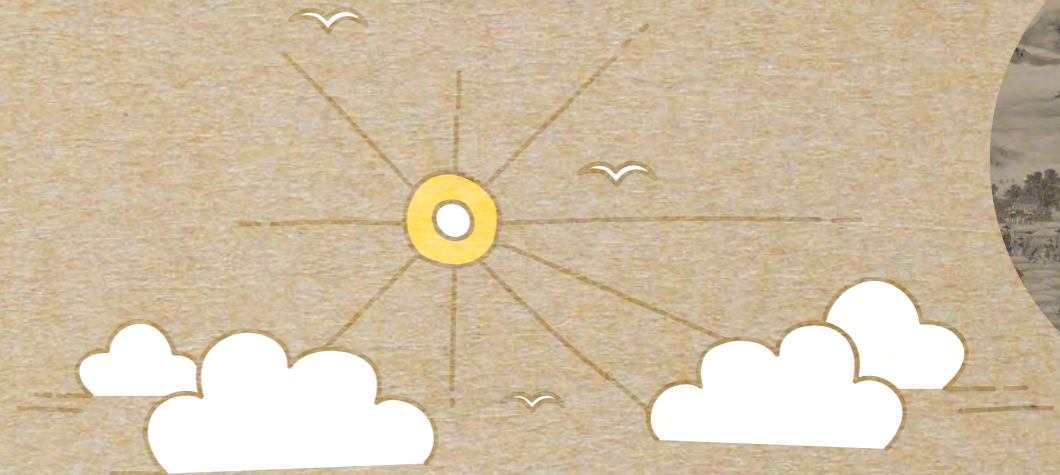
젠트리피케이션도 마찬가지이다. 입주 작가나 문화형 소규모 가게에 대한 지자체의 임대료 지원이 필수적이다. 건물주와 입주 작가들끼리 이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 단위의 논의와 협업의 장도 열려줘야 할 일 일껏 만든 시설이 흉물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려면 행정당국의 꾸준한 관리가 절실함은 말할 나위도 없겠다. 부산을 놓고 말하자면, 각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준비를 차리고 있다. 서구 동대신2동, 사하구 신평1동, 금정구 금사동, 동래구 온천동, 중구 영주동 등의 낙후된 동네 7곳이 올해 정부의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다. 이들 7곳에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모두 2,306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쇠퇴한 산업 기반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재생사업이 펼쳐질 것이라고 한다.

아마 각종 문화시설물도 들어설 것이다. 부산시나 해당 구청이 전시성 사업 추진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국내외 성공과 실패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꼼꼼하고 체계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겠다.

B- side



046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
- 이승희 상상편집소 피플 기획자





徳来里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덕후 문화

글·인터뷰어 이승희 상상편집소 피플 기획자
인터뷰이 박진 부산대 건담카페 「수집가」 대표



덕본재말(德本財末) :
사람이 살아가는 데 덕이 근본이며
재물은 사소한 것이라



자신의 취향을 위해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이 있다. 쓸데없는 일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을 흔히들 덕후라고 부른다. 덕후는 자신만의 깊이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사회가 부여한 의미가 아니라 자신만의 의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2년 전 덕후가 주인공이 되어 청년들과 취향을 공유하는 덕후 워크숍을 기획하였다. 「청년취향공동체, 덕후당」이라는 덕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하나에 빠져 깊은 우물을 파고 있는 여러 덕후들을 만났다. 하나에 빠질 수 있는 힘, 그 힘을 '덕질'이라고 부른다. 덕후당을 통해 그 힘이 넘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좋았다. 그게 거대로봇이든, 리듬게임이든. 그렇게 좋아하면서 알려주는데 어떻게 함께 좋아하지 않을 수 있을까? 덕후를 만나면 하나같이 자신은 덕후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친다. 쓸데없이 겸손한 덕후들과의 만남은 유쾌하다. 그들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는 모습도 재미나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꽤나 전문적이고 새로운 분야라 언제 들어도 재미나다.

가끔씩 당연히 상대방도 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덕후력을 들을 때면 분위기를 위해 아는 척 얼버무리기도 한다. 그러고는 휴대폰으로 자연스럽게 검색을 해보며 얇은 지식을 넓혀간다. 자신의 기쁨과 만족, 삶이 충만해지는 그 순간의 카타르시스를 위해 덕질을 하는 청년들이 성덕(성공한 덕후)이 되기도 하고, 취미를 넘어서 전문가가 되기도 한다. 원래 제일 좋아하는 건 직업이 아니라 취미로 남겨야 한다고 흔히들 말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기가 그만큼 어렵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걸 해낸 덕후가 있다. 부산대 앞에서 건담카페를 운영 중인 건담덕후를 만났다. 건담 덕질만 20년째, 일본 옥션에서 직접 건담을 구매한다는 건담 진성덕후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한길만 가는 고수들이 있고,
가다보면 갈래로 나뉘지는 고수들도 있다.

Q. 건담 시리즈

건담 시리즈는 토시노 요시유키라는 감독이 전쟁의 참상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만든 만화예요. 16세 소년이 우연히 전쟁에 휘말리면서 파일럿이 되고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건담이 인기 있었던 이유가 마징가나 슈퍼로봇물 쪽은 거의 권선징악, 나쁜 놈 아니면 착한 놈, 외계인, 괴물 등이었는데 건담에서는 연방군이 있어요. 요즘시대로는 유엔이죠. 지구가 포화상태가 돼서 콜로니라는 인공위성 같은 걸 만들어서 이주를 시작하거든요. 거기를 우주연방이 다 관리를 해요. 콜로니에 지오나라는 독립국가가 있는데 지오나라는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독립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쁜 놈 착한 놈이네 이렇게 하지만 지오나라 입장에서 보면 독립전쟁이거든요. 연방이 나쁜 놈들이예요. 그리고 연방 입장에서 그냥 잘 살지 왜 독립을 하려고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담의 세계관(스토리)은 심오해요. 성인 취향의 깊이도 있고 사상, 정치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건담에 나오는 파일럿들은 많이 죽습니다. 주인공들이 많이 죽어요. 감독의 특징이기도 한데 주변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요. 진짜 다 죽어요. 설마 죽을까 하는데 또 죽어요.

Q. 입덕 계기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50원, 100원짜리 장난감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학창시절에는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으니 많이 못 만들었지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하나씩 사서 만들다가 그때 제법 많이 모았어요. 한 50~60개 정도 모았죠. 그러다가 친구가 가게에 장식하고 싶다고 해서 빌려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연락이 안 되면서, 뭐 장사가 잘 안 됐겠죠. 갑자기 연락이 닿아서 물어보니까 다 처분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동안 안 했어요. 안 하더라도 정보는 계속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삼십대 초반쯤 됐을 때 다시 시작했어요. 건담 등급 중에 PG(퍼펙트그레이드)란 게 있어요. 건담 안에 내부 프레임까지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고 부품도 천 개 이상의 엄청난데 디테일한 건담인데, 크기가 커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작은 크기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는데 마침 그게 나온 거예요. 엄청나게 디테일한데 작게. 친구가 일본에 갔다가 선물로 사와서 만들어봤는데 충격을 받았죠. 그걸 하면서 건프라를 다시 시작했어요. 이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조금 생기자 보니까 더욱 강력하게 덕질을 하게 되었죠.

Q. 건프라=반다이

완구의 역사를 보면 완구는 전쟁에서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2차 대전 같은 전쟁에서 작전 판 짤 때 군말 있잖아요. 2차 대전 철수할 때 그런 작전판이 남아서 완구로 만들어 팔기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완구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담 종류만 해도 2천 가지가 넘고 건담 역사가 내년에 아마 40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반다이라는 회사가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있어요. 완벽한 초보부터 완벽한 프로 펌셔널까지. 근데 이 반다이라는 회사도 흑역사가 있는 게 원래는 밀리터리 프라모델을 만들었는데 사실 타이야나 하세가와라는 다른 회사들에 가려 빛을 못 보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일본에서 로봇물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였는데 그걸 우연찮게 완구회사에서 청탁을 받아 반다이가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리터리 쪽보다 로봇물 쪽으로 노선을 틀었죠.

Q. 모든 건담→프라모델 제작?

반다이라는 회사가 인기 많은 애들은 엔트리로 계속 제작하고, 비인기 기종들은 클럽지라는 라인을 만들어 프리오더로 예약주문 들어오는 만큼만 만들어요. 왜냐면 비인



기 기체가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재고가 쌓이니까요. 그런 형식으로 많이 제작을 합니다. 근데 거의 다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진짜 그거 땀에 욕을 더 많이 먹어요. 기본 기체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왼손 모양이 조금 다르게 나와요. 요거 추가해서 또 발매를 합니다. 조금 있다가 오른손 모양을 조금 다르게 해서 또 발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욕을 하면서도 사요. 다 모아야 하니까 사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안 살 수도 없고, 덕후들 특징이 엄청 욕을 많이 해요. 욕을 하면서 사요.

Q. 건담의 매력

만들다보면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훌 빠지는 마력이 있는 데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직접 만들어 완성시킨다는 데 성취감이 있어요. 그러다보니 컬렉션을 하고 자기가 만든 것을 나중에 커스텀 하거나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이 마니아들이 많이 생기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담을 만들다 보면 순간적으로 집중이 확 되기 때문에 우울한 감정이 오프가 돼요. 저도 그런 점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카페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상당수 그런 부분에 매력을 느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특징이 집에 좀 많이 쌓아두고 있어요. 쌓아놓은 프라탑(프라모델박스) 수가 열 개 이하로 떨어지면 조금 불안해요. 통장잔고 같은 거예요. 쌓아놓으면 내가 절대 외롭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보니 만드는 것보다 탑 쌓는 데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

Q. 덕업일기

일본 만화가 중 유명한 미즈키 시게루라는 사람이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분이 타게하시고 유서로 적어놓은 글귀가 있었어요. '어차피 인생 그런 거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개인적으로 힘을 때라 그런지 그게 많이 와 닿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나도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안 될까라'



는 이야기를 했고 아내는 흔쾌히 수락해줬죠. 그렇게 준비 하면서 건담카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내에 없는 제품 위주로 전시되어 있어요. 카페 오픈한 지는 1년 반 정도밖에 안됐어요. 여기 있는 건담의 반 정도는 제 방에 있던 겁니다. 하하. 나머지 반은 원래 사무실에 있던 거구요. 거기도 너무 꽉 차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검사검사 시작했죠.

국내에서 못 구하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일본에는 옥션 시스템이 있는데, 고전완구부터 시작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출품되죠. 그런데 경매의 특수성 때문에 외국인 참여가 안 돼요. 국내에 경매 대행업체가 있긴 하지만 수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용을 잘 안 하죠. 일본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그쪽 네트워크도 생기고 ID 발급받아 직접 경매를 받게 됐어요. 그때 경매에 꽃혀서 안쪽에 창고가 있는데 카페에 있는 건담 반만큼 더 있어요. 하하. 그때 너무 좋아서 대책 없이 막 받았어요. 그중에서 레어템도 되게 많았거든요.

초반 6개월은 물건을 놓고도 안 팔았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1,000개 한정, 500개 한정을 경매로 어렵게 구했는데 팔기가 싫었죠. 산다고 해도 "죄송합니다.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뭐 파는데요?" 그러시면 "지금

파는 물건은 아직..." 이렇게 계속 하다가 야후 굿이 물건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봐야 뭐 하겠나 싶기도 하고, 어차피 카페로 오픈해봤는데 싫어서 그때부터 보여드리고 잘나가는 건담은 몇 개 갖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건담 구매달라는 연락이 많이 오더라구요. 그분들께 구하고 싶었던 물건 구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Q. 덕후에 대한 물라진 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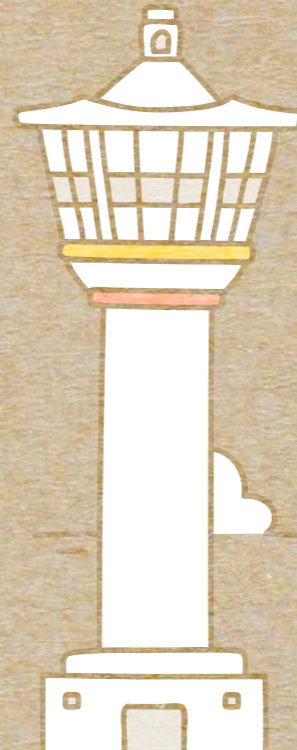
주말에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하나 사서 애들 데려 만들라고 하고 불일 보러 가시죠. "우리 애들 산만한데 잘 봐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잘 만들어요. 어머니들이 이렇게 한다는 건 건프라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우리 때는 장난감이나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누구 연예인이 뭐 하더라 이런 식으로 차라리 건프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더라구요. 애들한테 건프라 하라고 시키는 것을 보니까 이게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건담은 이제 비주류도 아닙니다. 충분히 대중적이라고 볼 수 있죠. 백화점, 마트마다 다 입점되어 있는 것이 그 증거죠.

한국인의 DNA에 새겨져 있는 덕후력

인터뷰가 끝나고 건담카페를 나서기 전 카페 안을 둘러보다 파칭코 기계가 눈에 띄었다. 퍼스트건담 파칭코, 루팡 파칭코였는데 바다이야기로 한참 사행성 게임 논란이 있던 시기라 세관과 파칭코 기계 들어오는 거 가지고 한 달 넘게 실랑이했다고 덕후는 전했다. 덕후의 방 사진을 찍어서 건담을 이렇게나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서야 세관에서 들여보내주는 걸 허락했다며 건담 파칭코를 소개해주는 덕후의 이야기는 끝이 날 줄 몰랐다. 덕후 문화는 일시적 문화 현상이 아니라 덕후라 불리지 않았을 뿐 계속해서 존재해왔다. 우리 부모님은 드시지도 않는 양주를 그렇게나 모으셨고 수석, 분재, 담금주, 낚시, 바둑 등에 애착을 주는 부모님 또는 친척이 주변에 1명씩 있지 않은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라디오헤드를 뛰어넘는 군중력을 보여줬고, 촛불집회는 보수, 진보를 망라해서 우리나라의 정치덕후들이 대규모 덕잉아웃을 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오늘도 한국인의 DNA에 덕후력이 흐르고 있다. 숨겨져 있는 깊은 덕력으로 여러 우물을 파보길 추천한다. 그러다 보면 모두가 진성덕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돌아와요 부산 鄉愛



056 초량왜관, 역사의 수장고에서 걸어 나오다
- 강석환 초량왜관연구회 회장

060 우리 시대의 위트니스 사진가 최민식
- 강현덕 한국예술문화비평가협회 사진분과위원장

삶의 흔적을 품은 자리 안창마을 골목
- 문진우 사진가, 본지 편집위원

066



초량왜관, 역사의 수장고에서 걸어 나오다

글 강석환 초량왜관연구회 회장

왜관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경북 구미와 대구 사이에 있는
왜관이 떠오른다고요?
그곳 구미, 칠곡 왜관은
익히 들어 알고 있어도
초량왜관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왜관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었을까요?

초량왜관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6무지엄 이미지 제공



200년간 조일 교역을 담당했던 기관

왜관은 조선시대 일본인들이 조선에 와서 통상을 하던 곳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관 중에서도 조선 후기 부산에 있었던 초량왜관에 한정하여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초량왜관은 1678년부터 1876년까지 조일 간 교역을 담당했던 기관입니다. 부산 용두산을 중심으로 약 10만 평의 대지에 있었습니다. 초량왜관의 전성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초량왜관도(草梁倭館圖)>로서 1783년 동래부 화원 변박이 그렸습니다.

그림 속 중앙에 세로로 길쭉한 산등성이가 용두산입니다. 용두산을 중심으로 동관과 서관으로 나뉘었고 다양한 건물들이 가지런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곳 왜관 안에는 대마도에서 온 성인 남자 200~500여 명이 체류하며 동래부의 통제 아래 무역을 담당했습니다. 물론 초량왜관 이전에도 두모포왜관이 70여 년간 존재했습니다. 그 두모포왜관이 있던 곳이 지명으로 남아있는 게 '고관(古館) 입구' 또는 '고관마을'입니다. 지금부터 초량왜관의 안과 밖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열린 큰 시장

초량왜관은 조선과 일본 사이에 열리는 가장 큰 시장이나 마찬가지로였습니다. 또한 동시대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상관(商館)이기도 했습니다. 초량왜관의 울타리 안에는 수많은 건물이 있는데, 상품들을 거래하는 건물로 '개시대청(開市大廳)'이 있었습니다.

역새플(蓆) 띠(梁)를 이룬 새띠털 / 저 멀리 마주 뵈는 수문장 오류도 / 신선들의 놀이터 절영도가 손
짓하는 해안 / 용머리 닮은 송현산(松峴山) 기슭 아래 / 왜상(倭商)들을 위한 십만 평 교역장 // 장장
2백년 넘게 / 허협을 넘나던 교역의 무대 / 변박이 그린 초량왜관도(倭館圖) 속 / 관수가(館守家) 아
래 개시대청 장마당 / 시끌벅적 흥정소리 들리는 것 같네 // 고려인삼 도자기랑 비단이랑 차진 쌀도
나가고 / 구리도 은괴(銀塊)도 들어오고 / 동남아산 물소뿔이랑 후추도 들어오고....(하략)

- 박하 '새띠털의 첫편지' 중

조선에서 일본으로 수출된 상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인삼, 생사(生絲, 물들이지 않은 비단), 쌀, 목면, 의약품 등입니다. 인삼은 예로부터 '고려인삼'이라고 불리며 약효가 탁월하다 하여 가장 인기 높은 상품이었습니다. 인삼을 수출할 때는 주로 말린 삼(乾蓼)을 수출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해온 물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황, 구리, 은, 물소뿔, 소목(蘇木) 등이 들어왔습니다. 유황은 화약의 원료입니다.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끝난 뒤 청나라의 세력이 서서히 강해지면서 조선에서는 국방을 위한 무기, 그중에서도 화약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유황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구리는 상평통보와 같은 동전을 만드는 재료이기에 구리의 수입도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물소뿔은 각궁(角弓)이라 하여 활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재료입니다. 다시 말해 교역 측면에서 보면 조선 후기는 결코 쇠국(鎖國) 시대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1) 부산초량왜관연구회 정기간행물 <새띠털의 메아리> 창간호(2014. 4) 축시



동래부사절에서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조선 초량 전경
영서 수원관교박물관 소장, e뮤지엄 제공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사랑한 조선의 매

조선에서 일본으로 수출된 상품 중에는 매(鷹)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송골매, 해동청 보라매는 조선을 대표하는 상품이었고, 특히 에도 막부의 쇼군부터 고위직 사무라이들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공무역에서도 살아있는 매가 수출되었지만, 조선통신사 사행 때도 반드시 선물로 가는 게 매였다고 합니다. 쇼군 중에서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매 사랑은 유명했습니다. 일본 혼슈 시장 시즈오카 현에 위치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동상을 보면 그의 오른 팔뚝에 매를 올려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상품 중 조선에서 인기 있었던 것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우선 판소리 '춘향가'의 한 구절을 봅시다.



(그러면 니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갈명사랑의 오화당을 주랴

초량왜관을 통해 수입된 상품들 가운데 가장 인기 높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사탕이었습니다. 사탕의 원료인 사탕수수는 일본에서도 재배되지 않고 동남아에서만 재배되었기에 곧 중개무역 상품인 것입니다.

초량왜관 전시관이 시급한 이유



당시 초량왜관은 동래부사의 지휘 아래 사사건건 통제를 받았습니다. 처음 초량왜관의 이전, 설치에서부터 건물의 유지 보수, 땀감 지급에 이르기까지 동래부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 후기 150여 년 동안 12차례 이루어진 조선통신사 사행도 동래부사와 초량왜관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이루어졌던 이벤트였습니다.

초량왜관은 단순히 왜관 울타리 안에서만 존재했던 게 아닙니다. 울타리 밖에는 연향대청, 객사 그리고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초소인 북병막도 세 군데나 있었습니다. 이처럼 초량왜관은 스스로 존재했던 게 아니라 동래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통제 아래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초량왜관은 1876년 병자수호조규(일명 강화도조약)에 의해 전관거류지로 바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초량왜관이 마치 침략의 교두보 역할을 한 것인 양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량왜관에 드리워진 오해의 장막이 서서히 벗겨지고 있는 중입니다. 뜻있는 전문가들의 연구가 축적되고, 우리 초량왜관연구회의 노력도 촉매제가 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루빨리 전시관을 짓는다면 부산과 부산항 역사의 복원은 물론 일본인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명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 길만이 역사의 수장고에 유폐되었던 초량왜관의 진실을 제대로 복원하는 길입니다.

우리 시대의 워트니스 사진가 최민식

글 강현덕 한국예술문화비평가협회 사진분과위원장



부산항부두, 1967년, 최민식, 『얼회당사진문고 22』, 열화당, 1987년

최민식 선생은 1928년 황해도 연백군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평안남도 진남포로 옮겨 와 자동차 기능공으로 일하면서 화가의 꿈을 키웠다. 그는 일본으로 밀항해 그림공부를 하던 중 우연히 미국 뉴욕현대미술관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에드워드 스타이켄(E. Steichen)이 기획한 '인간가족(The Family of Man)'전의 작품집을 보고 큰 감명을 받는다. 이 기획전은 20세기 사진계의 최대 이벤트로 "지구의 모든 인류는 한 가족"이라는 슬로건 하에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사의 희로애락을 담은 사진역사상 전 무후무한 장편 서사시이며 휴먼드라마였다. 그림을 포기하고 사진가가 되기로 결심한 그는 부산으로 돌아와 독학으로 사진을 공부했다.

삶에 대한 애착과 휴머니즘이 녹아든 사진

최 선생은 1957년 사진을 시작했다. 무작정 사진기를 메고 거리로 나온 그는 인간가족전의 감흥을 떠올리며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다. 사진기라는 도구를 통해 그의 시신경을 자극한 것은 가난한 자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인간 군상들의 삶의 모습이었다. 이는 그가 처음으로 온 몸에 진을 느끼듯 자극을 받은 것이었다. 한국전쟁의 수난과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 삶을 위해 힘들게 펼쳐지는 서민들의 고충과 빈곤을 목격한 그는 이것을 그대로 기록해야 하겠다는 강한 의무감을 갖게 된다. 누가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만국공통어인 언어로 그들이 직면해 있는 처절한 현실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가 평생 바라보고 추구해 온 사진의 영원한 주제가 되었다. 길모퉁이에서 쪼그리고 앉아 우동을 먹고 있는 어린아이, 단지 생존을 위해 심한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우산이라도 팔아 생계를 떠맡아야 하는 아이들, 동냥을 기다리는 장애인, 누나의 등에 업혀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어린아이, 물을 배급받기 위해 줄을 지어 서있는 산동네 마을 사람들 그리고 주름이 깊게 파여 있는 지친 노동자 등,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의 남루한 일상을 포착한 현실들, 이것이 그가 추구해왔던 가장 솔직한 카메라아이의 증언이었다. 최 선생은 이러한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보고 사진가가 되었다. 그는 서민들의 고단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나타내면서도 한편으론 정감 있게 전달해 준다. 그의 사진에는 가난하고 힘들지만 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찬 내일을 개척해 나가는 서민들의 땀과 역척스러움이 묻어나 있다. 그의 사진에는 이토록 삶에 대한 강한 애착과 휴머니즘이 녹아 있기에 시대와 세월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는 감동을 주는 것이다.



부산 지경저서정, 1969년, 최민식, 『인간, 최민식 사진 50년 대표선집』, 문빛, 2006년

시대의 목격자로서 사진으로 표현한 저널리즘

최민식의 사진은 정확한 기록임과 동시에 감동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그런 뜻에서 그의 사진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시켜 주기에 충분했다. 또한 사진이라는 구체적인 매체로 현실을 적나라하게 담아내어, 평생을 ‘인간(human)’이란 주제로 일반 언론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대신해낸 시대의 워트니쓰요 저널리스트였다. 작가는 미의식보다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의무감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타인의 모습을 통해 자아를 들여다보게 되고, 이질적인 것을 만나면서 우리 것을 생각하고 우리를 되돌아보게 된다. 마찬가지로 사진 한 장에서 타인의 인간성을 경험하고 이해하려는 순간, 우리의 인지구조는 확장되어 간다. 최 선생은 이러한 보편적인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평생을 사진으로 생각하고 사진으로 호흡하며 사진을 묵묵히 실천해왔다.

수많은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의 목표의식으로 끌어안았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의무감과 책무를 삶의 일상에서 놓지 않았다. 이 시대에 사진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천착해 오면서, ‘사진의 사상’과 ‘작가정신’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평생 실천했다. 민중들과 함께한 그의 시각은 바로 다름 아닌 작가의 일상이며, 그의 사진시각은 일상을 바탕으로 하는 데서 나온 것이었다. 작가가 만들어낸 사진의 지층에는 한국현대사의 곱절이 빚어낸 혹독한 이야기가 있으며, 전쟁과 빈곤이라는 시대의 어둠에서 벗어나려는 우리 서민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축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동시에 그의 사진에는 결정적 순간의 미학과 유머러스함도 담겨있다. 세상사에는 결정적 순간이 아닌 순간은 없듯이 어떤 상황의 의미와 일정한 형태나 구성미의 엄격한 조화를 동시에 인식하는 것이 ‘결정적 순간’이다.

사진은 이 단순하지 않은 시계추의 흐름을 포착해 고정시키는 것이다. 그의 사진 속에는 현재 진행되는 시간의 숙명적인 유한 흐름과 이것이 영원으로 도달하려는 그 무엇인가의 지속성이 있다. 그러면서도 인간 현실의 시간성을 초월하고 있음에 주목하게 된다. 작가의 사진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사건상황이 이미지로 발전하면서 역사의 이야기로 연결된다. 이러한 그의 시각적 서술구조는 보는 이로 하여금 사진 속 그 무엇과 대화하게 하며 또 하나의 파노라마를 엮어나가게 해준다.



부산, 1965년, 최민식, 『인간, 최민식 사진 50년 대표사진』, 눈빛, 2006년

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한 휴머니스트

평생을 인간 즉 휴머니즘을 주제로 다룬 다큐멘터리 작가 최민식. 그는 1967년 영국사진연감에 작품이 수록되면서 스타 사진작가로 선정되었다. 15회에 달하는 해외 초대 개인전을 가졌으며, 1968년부터 작고 전까지 작품집 『인간』을 14집까지 출판했다. 이러한 왕성한 활동으로 부산시 문화상을 비롯해 대한민국 옥관문화훈장·대통령국민포장을 받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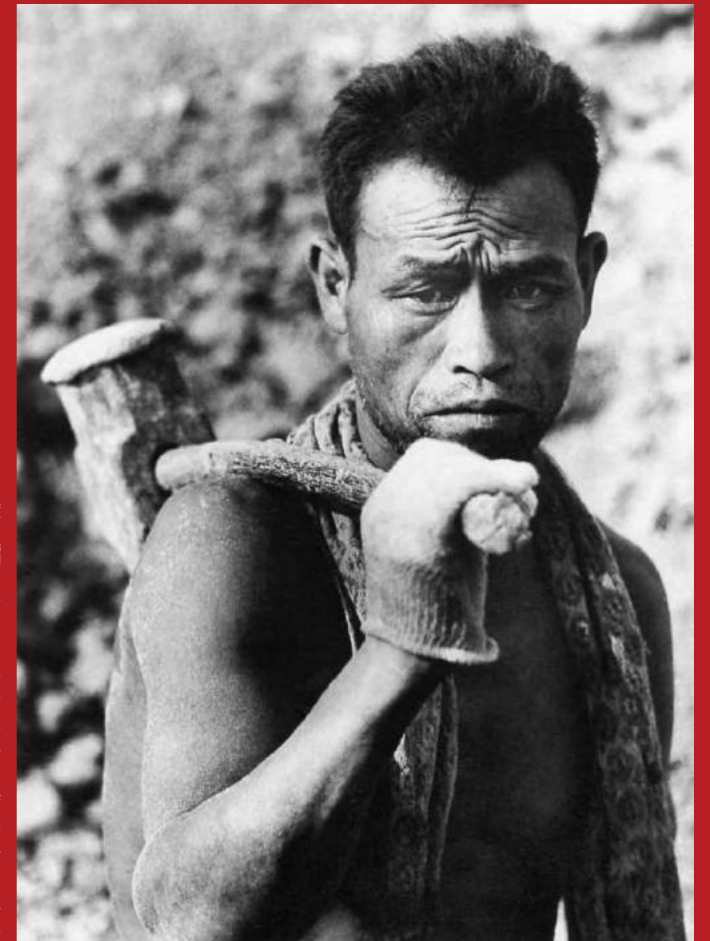
최민식은 그의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나의 카메라 워크는 절대로 가난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나 호기심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통찰과 분노의 고발인 것이다. 나의 사진은 고난과 시련을 겪은 인간으로서의 아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 리얼리즘 사진가로서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인간이 머무는 곳이 나의 사진 영역이다. 나의 사진은 어린시절과 청년시절의 험난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다. 나는 사진을 통해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고, 휴머니즘의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 사람만이 희망이라는 휴머니즘의 외길을 걸어 온 작가의 사진론이다.

작가가 우리의 현실을 담은 작품세계의 근저에는 서민들 삶의 가치에 대한 헌사가 담겨 있다. 그의 사진은 우리 현대사와 더불어 자연과 살아가는 인간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이다. 작품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현실에의 광휘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이야기임을 말할 나위도 없다.

그는 인간을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 했다. 그에게 인간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었다. 작가가 바라본 과도기 시대의 사진 세계는 감각의 차원을 넘어 애정 어린 시선으로의 이타적인 숭고미를 보여준다. 이렇듯 최민식 선생은 사진의 현실성을 인식하면서 사진가 나름으로의 자각적 관점으로 상처받고 힘들었던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한 이 시대의 진정한 휴머니스트였다.



사진가 최민식



부산, 1965년, 최민식, 『인간, 최민식 사진 50년 대표사진』, 눈빛, 2006년

삶의 흔적을 품은 자리

안창마을 골목

글·사진 문진우 사진가, 본지 편집위원



어느덧 길어진 오후의 그림자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음을 대신하고 있다.
골짜기 마을이라 오후 해를 등진 곳엔 이미 그늘이 짙다.





골목으로 들어서니 이방인의 방문을 경계하는 개들의 짖는 소리가 유난히 요란스럽다.
벽에 걸린 빨랫감, 빨랫줄에 걸린 몇 마리 생선이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팔을 뒷집 지고 골목을 오르는 할머니의 모습이 힘겹다.
파란 지붕 위엔 고양이 한 마리가 오후 빛을 즐기고 있다.

마을의 맨 안쪽이자 맨 위쪽에 올라보니 마을이 한눈에 들어온다.
마을 바깥세상의 높은 빌딩들은 금세라도 마을을 치고 들어올 기세다.
안창, 맨 안쪽에 숨어들어가 있는 곳을 말한다.
안창마을은 물만골, 문현동 벽화마을과 더불어 부산 달동네의 상징이다.
행정구역이 범일동이니 비교적 도심 가까이 인접해 있다.





그러나 마을의 풍경은 시간이 몇 십 년 전에 머문 것처럼 낙후된 모습이다.
부산의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이 터를 잡으면서 생겨난 마을이다.
삼화고무를 비롯해 신발산업의 전성기 시절에 시골서 올라온 누이 오빠들의 힘들었던
삶의 흔적을 품고 있는 마을이다.



어느덧 해가 뒷산을 넘어간다.
그 흔적들이 마을과 함께 점차 어둠에 묻혀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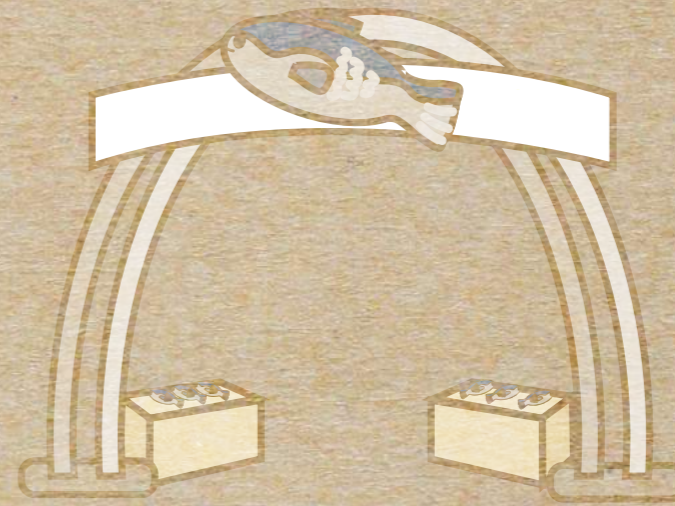
그리고 재단



074 부산 문화예술인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으로
- 정지나 부산사람도서관 대표

076 3/4분기 부산문화재단의 이슈

주요행사 078



부산 문화예술인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으로

공유문화플랫폼365

글 정지나 부산사람도서관 대표

“안녕하세요. ○○○ 선생님.
부산문화재단 공유문화플랫폼 콘텐츠 담당자 ○○○입니다”

올해 초 오픈한 ‘공유문화플랫폼365’에 공간, 재능 공유를 신청하신 분들의 인터뷰 스케줄을 잡기 위해 제일 먼저 드리는 전화 인사말이다. 인사말을 마치면 대부분 전화 너머의 무뚝뚝한 음성이 경쾌함으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아마도 휴대폰에 찍힌 모르는 전화번호는 택배나 광고이거나 생각했다. 문화예술인들과 가장 밀접한 공공기관인 부산문화재단이라는 말이 반가웠는지도 모르겠다. 보통 공유문화플랫폼365에 대해 짧막하게 안내하고 인터뷰 일정을 잡은 후 방문한다.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비치된 악기부터 공간의 작은 부분까지 깔끔하게 정돈된 주인장의 정성이다. 온라인에 공개될 곳이라 신경을 쓰기도 했겠지만,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곳이라 관리를 대충 하지 않음을 단번에 짐작할 수 있었다.



분격적으로 공간을 소개 받은 후 인터뷰가 시작된다. 공간 사진만 찍고 갈 줄 알았는데, 공간을 만든 계기부터 그동안 걸어온 문화 예술 활동까지 이야기하자고 하면 10명 중 8명은 주저주저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리 대단한 활동을 한 것도 없고, 인터뷰라고 내가 딱히 할 말이 있기는 한가...’

그것도 잠시, 준비한 질문들과 더불어 내가 공간에서 받은 느낌을 이야기하며 궁금한 점들을 주거나 받거나 하면 40분은 훌쩍 지나간다. 단순 질문과 답변을 반복하는 인터뷰는 진심으로 공감하는 지점을 만나면 대화로 바뀐다. 그동안 활동하면서 행복하고 힘들었던 일, 앞으로 부산에서 음악, 예술 활동을 어떻게 더 전개하고 싶은지 꿈도 나눠주신다. 대부분은 예술하기 좋은 서울을 동경하기보다,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존하고 싶어 한다. 앞서간 선배로서, 현재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부산의 일상에 문화예술이 뿌리내리고 지속 가능할까?” 하는 공동의 문제를 안은 채 말이다. 지역에서 아티스트를 키우고 성장시키는 레이블을 설립하여 여러 단체와의 협업을 시도하는 젊은 음악인부터, 연습 공간이 필요한 후배들에게 무료로 공간도 내어주고 연대하여 함께 공연을 기획하는 1세대 선배 예술인까지. 그들은 최소한의 생존이 해결되는 문화예술생태계를 만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매년 배출되는 후배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다.

공간과 재능을 공유하기 위해 나는 짧은 대화에는 단순히 공간과 재능의 이야기만 오가지 않는다. 그분들이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나눔으로써 얻어지는 행복과 기쁨, 삶에 대한 고마움을 더 많이 이야기해준다. 인터뷰가 거듭될수록 부산문화재단 곳곳에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진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직도 살 만하다고 느낄 수 있는 온기를 불어넣는 그 분들이야말로 부산의 문화예술을 지탱하는 작은 힘들이 아닐까?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내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내놓고 서로를 치유하고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묵묵히 그들의 길을 가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공유문화플랫폼365는 단순히 공간과 재능을 공유하는 곳이 아닌 그들의 살아있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한다.

행정하기 편하게, 운영자 입장만 고려하는 플랫폼이 아닌 드러나지 않게 활동하는 부산의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의 마음들이 반영되는, 사용자 입장을 고려한 매력적인 플랫폼이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부산시민들이 쉽게, 많이 이용하고 알려질 수 있다면 수많은 부산문화예술인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다.

나누어 쓰는 문화공간	남는 공간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연습실, 작업실, 작품보관소, 공연장, 회의실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술의 씨앗을 뿌리는 재능공유	나누고 싶은 문화예술 재능이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세요. 예산이 없거나 접근성이 부족한 곳에 문화를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사람과 예술을 잇는 악기기부	집에서 잠자고 있는 악기를 기부해주세요. 음악 교육을 원하는 지역 아동복지단체 아이들의 문화감수성을 키워주는 멋진 선물이 됩니다.

공유문화플랫폼365 <http://platform365.bscf.or.kr>

3/4분기 부산문화재단의 이슈

신임 기획경영실장·본부장 임용

2018년 8월 7일



신임 기획경영실장 파견 및 예술진흥본부장·생활문화본부장 채용에 따라 8월 7일 임용식을 가졌다. 이 미연 생활문화본부장은 생활문화활성화를 위해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교육청과 시, 문화재단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진 예술진흥본부장은 예술가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며 원로예술가, 문화적 도시재생, 예술인 일자리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문화재단 한일포럼상 수상

2018년 8월 20일~22일



재단은 8월 20일~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6차 한일포럼'에서 양국 관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인사 및 단체에 수여하는 제3회 한일포럼상을 수상했다. 한일포럼은 1993년 한·일 양국의 경제·학계·언론계 인사들이 참여해 민간 교류기구로 출범했으며, 이번 상은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문화재단(한국)과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일본)가 공동 수상했다.

3/4분기 부산문화재단의 이슈

세종문화상 수상

2018년 10월 8일



재단은 세종대왕의 위업을 기리고 창조정신을 계승하고자 1982년에 제정된 세종문화상을 10월 8일 광화문광장에서 국제문화교류 부문에 수상하였다. 특히 일본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와 함께 국내 9개 기관이 소장한 조선통신사 기록물과 일본 25개 기관이 소장한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등 양국 문화교류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장애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실시

~ 2018년 11월 15일까지



11월 15일까지 부산 장애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예술 관련 동아리·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발표·전시 등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 예술 관련 전공자 및 전문 예술분야 공부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번 조사는 장애 문화예술 사업 필요성과 대상자 층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에 적합한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그 결과와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

10 월 Information 주요행사 OCTO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감만창의문화촌 리서치 프로젝트 전시 ~ 10. 14. (일) 감만창의문화촌 1층 사랑방 전시실 F1963 특별기획전시 철-인원 ~ 10. 21. (일) F1963 석천홀	2	3 개천절	4 홍타아트센터 6기 입주예술가 릴레이 개인전 전시 (허찬미, 박자현) ~ 10. 19.(금) 홍타아트센터	5	6
7	8	9 한글날	10 청년문화 네트워크 포럼 7회차 사상인디스테이션	11	12 F1963 오픈스퀘어 5회차 F1963	13
14	15 색다른展	16 청년작가초대전 '색다른'展 ~ 11. 8.(목) 사상인디스테이션	17	18 CATs 인디페스티벌 인디 워 홀 사상인디스테이션 20 SHOW FESTIVAL ~ 10. 21.(일) 부산광안리 비치비키니	19	20
21	22	23	24 조선통신사 기록물 2018.10.25-10.27.	25 조선통신사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기념사업 - 조선통신사 기록물 특별전 오픈 부산박물관	26	27 조선통신사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기념사업 - 학술 심포지엄 국립해양박물관
28	29	30 부산 문화로 통 포럼	31 감만창의문화촌 3층 배움방			

11 월 Information 주요행사 NOVEM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예술놀이터	2 2018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10월 (7회차) 행사 울산 남구 업스퀘어 열린공간 부산 사상구 상설문화광장 2018년도 부산생활 문화센터 기획 프로그램 행사 한성918 부산생활 문화센터	3 우리들의 봉긋방 탐구생활 8회차 청년두드림 2층 회의실 2018 부산 문화예술 교육 페스티벌 (시골벽적 예술놀이터) KNN센텀광장
4	5	6	7	8 백 11. 9. - 11. 24. 영화역전당 인디플러스	9 문화다양성 이음 영화제 ~ 11. 11.(일) 영화역전당 인디플러스 어둠속의 하루 ~ 11. 11.(일)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홍타아트센터-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입주예술가 교류전 ~ 11. 24.(토) 홍타아트센터	10 토요상설 전통민속놀이마당 용두산공원
11	12	13 부산문화로 통 포럼 감만창의문화촌 3층 배움방	14 청년문화 네트워크 포럼 CATs 사상인디스테이션	15 문화다양성 이음 영화제 ~ 11. 17.(토) 영화역전당 인디플러스 문화다양성 포럼 ~ 11. 16.(금) 강강이생활문화센터	16	17 F1963 폐산업시설 문화공간 국제교류전 <<재:생>> ~ 12. 23.(일) F1963
18	19	20	21	22	23 CATs 인디페스티벌 인디 워 홀 CATs 사상인디스테이션 홍타아트센터 오픈스튜디오 ~ 11. 24.(토), 홍타아트센터	24
25	26	27	28 2018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11월 (8회차) 행사 울산 중구 젊음의거리 KT무대(예정)	29	30 2018년도 예술인 일자리 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 최종성과 전시회 ~ 12. 14.(금) 한성919 청자홀	

12월 Information 주요행사 DECEM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018 문화가 있는 날 청춘미크 11월(8회차) 행사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9층(예정)
2	3 2019년도 지역문화 예술특성화 사업 설명회 부산디자인센터	4 부산문화로 통 포럼 부산일보 소강당	5 청년문화 네트워크 포럼 CATs 사상인디스테이션 — 부·울·경 창작공간 교류전 ~ 12. 9(일) 경남예술창작센터	6	7	8 우리들의 봉긋방 탐구생활 9회차 청년두드림 2층 회의실
9	10	11	12	13	14 아트페어 UNDER35 8회 ~ 12. 21(금) 사상인디스테이션	15
16	17	18	19	20 	21 CATs 인디페스티벌 인디 워 홀 CATs 사상인디스테이션 — 아트마켓 AREA051 ~ 12. 22(토) 서면동천로 은행나무길 일원	22 놀러와 6회차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9층 엘아레나
23	24	25 성탄절	26	27 초수퍼 울트라 판타스틱 만화방 vol.2 ~ 2019. 1. 27(일) CATs 사상인디스테이션	28	29
30	31					

부산문화의 모~든 소식 여기다있네!


#부산문화재단 SNS와 친구를 맺어야 할 이유

언제 어디서든
부산문화재단의
소식을 받을 수 있다.


부산문화재단과
실시간으로 1:1상담이
가능하다.




감만창의 문화촌




부항사




좋아요




이웃신청



<컬쳐Tube>
구독 신청



팔로우



엘로아이디
친구 추가

2017~2018 상반기
부산 출판사 신간도서

부산에서 만나는

책

들여다보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참여의 첫 단추!**

예술활동증명

먼저, 신청하세요!

*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

02.3668.0200 / www.kawf.kr



산재보험 지원



국민연금·고용보험 지원



의료비 지원



예술인 신문고



법률 상담·컨설팅



심리상담



예술인파견지원



계약 및 저작권 교육지원



예술인패스



예술인재너돌봄 지원



창작준비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부산문화재단



계간지 「공감 그리고」 주요 배포처

「공감 그리고」는 무가지로 발간되며, 배포를 희망하시는 문화공간이나 단체는 부산문화재단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1-745-7224)

감만창의문화촌/조선통신사역사관/CATs 사상인디스테이션/홍티아트센터/F1963/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도시철도 북 하우스(시청역, 중앙역, 연산역, 온천장역, 수정역)/부산관광안내소(노포동, 부산역, 김해공항)/부산시립시민도서관/부산시 중앙도서관/부산국립국악원/부산시립미술관/부산시민회관/부산문화회관/을숙도문화회관/금정문화회관/동래문화회관/영도문화예술회관/해운대문화회관/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또따또가 운영지원센터/상상공간 아르케/모퉁이극장/부산지역 작은도서관 등

부산문화재단 후원회원 모집

여러분을 부산의 문화예술인으로 모십니다.

부산의 문화예술을 풍성하게 만들고 싶은 분! 산소처럼 부산문화재단과 늘 함께하고 싶은 분!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 화려함보다는 꾸준한 관심으로 재단과 기업체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하나 되어 단단한 후원을 쌓아가는 당신이야말로 부산의 문화예술인입니다.

후원혜택 1

- 세제 혜택(연말정산 등)
- 재단 기념품 증정
- 재단 발간도서 발송(공감 그리고, 연차보고서 등)
- 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행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시민평가단 우선순위 배정

후원혜택 2

- 일반회원 : 매월 1만 원 정액 납부
- 연간회원 : 매년 20~50만 원 정액 납부
- 평생회원 : 500만 원 이상 일시불 납부
- 단체회원 : 단체, 기관, 법인, 기업이 1,000만 원 이상을 일시불로 납부

후원혜택 3

-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 www.bscaf.or.kr ▶ 알림마당 ▶ 후원회원 모집 ▶ 후원회원 가입 신청하러 가기
- 문의전화 : 부산문화재단 재정관리팀(051-745-7252)